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추가 이벤트!

이벤트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분께  
볼펜을 증정해드립니다.



NEW



## ColorEdge CS2731

QHD 27" (2560 x 1440) | 16-bit LUT | EIZO 특허 DUE  
USB Type-C | Adobe RGB 99% | ColorNavigator S/W

EVENT - 사은품 2종 증정!



NEW EIZO 전용 캘리브레이션 센서 EIZO EX4 + EIZO 정품 마그네틱 후드 CH2700

SALE 1,870,000원



## FlexScan EV2430

디자이너를 위한 눈이 편안한 모니터  
FHD 24.1" (1920x1200) | 페이퍼 모드 | 플리커 프리

EVENT - 사은품 택 1 증정!



Calibrating 모니터 캘리브레이터 EIZO 정품 마그네틱 후드 CC Display CH2400 또는

SALE 550,000원



## ColorEdge CS2420

FHD 24.1" (1920x1200) | 16-bit LUT | EIZO 특허 DUE  
Adobe RGB 99% | ColorNavigator S/W

EVENT - 사은품 2종 증정!



NEW EIZO 전용 캘리브레이션 센서 EIZO EX4 + EIZO 정품 마그네틱 후드 CH2400

SALE 1,254,000원



NEW



ColorChecker

## Passport Photo 2

- 후대가 간편한 여권 사이즈 컬러 타겟  
- 클래식 / 인핸스먼트 / 화이트 밸런스 / 그레이 밸런스 타겟

SALE 121,000원



## FlexScan EV2760

디자이너를 위한 눈이 편안한 모니터  
QHD 27" (2560x1440) | 페이퍼 모드 | 플리커 프리

EVENT - 사은품 택 1 증정!



Calibrating 모니터 캘리브레이터 EIZO 정품 마그네틱 후드 CC Display CH2400 또는

SALE 880,000원





# 2021 포토마트 프로모션

☀️ 8년 연속 최우수 판매업체! 2년연속 최우수 서비스 업체!

## PHOTO PRINTER 업계 최대 할인 !!

- 최저비용
- 편리한 유지보수
- 선명한 출력품질



SL - D860  
미니랩 고속 프린터



SC - P904  
포토그래픽 A2 프린터



정품무한 L805

### Epson Print Repair Service

원격지원 / 엔지니어 출장 / 유일한 지역별 서비스 담당 배치

고객님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담당자를 배치하여 빠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님의 편의와 만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verything of Photo'

# PHOTOMART

포토마트는 국내 최고의 장비를 다량 보유하여 출력, 앨범, 액자를 생산·조립하고 포장·배송까지 직접 포토마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며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드립니다.

## 아크릴 시스템을 통해

## 비용은 줄이고

## 속도는 빠르게 !!

'압착 롤러 방식'으로 아크릴을 이용해 즉석에서 액자부터 약세서리까지 '누구나 손쉽게' 제작 가능합니다.



### ▶ 아크릴 장비로 제작 가능한 포토마트 액자

일부 몰딩을 자체 생산하고 조립하기 때문에 빠른 재료 공급! 효율적인 생산! 철저한 품질까지 보장!!  
포토마트만의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견고한 몰딩으로 오랫동안 사진을 아름답게 간직하세요 !!



어반AF



레이저목판



자작



디아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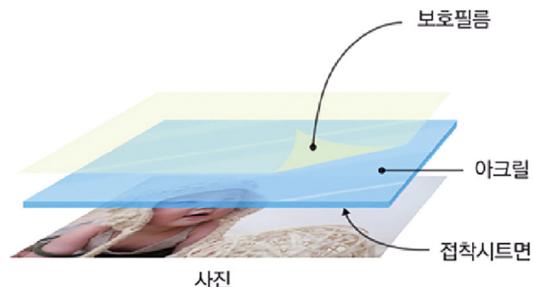
원목관



스마트

### ▶ 아크릴 직접 재단

아크릴 두께, 사이즈, 모양 구분없이 원하는 대로 레이저로 커팅하여 액자 뿐 아니라 다양한 약세서리까지 주문 생산이 가능합니다.



“포토마트에서는 반재 판매 및 제작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창조적인 기업 **출업앨범제작**

디지털인쇄기 : HP Indigo 12000 Digital Press 도입  
4COLOR 매엽기: IR코팅 RMGT 10 도입



# |주| 서인프린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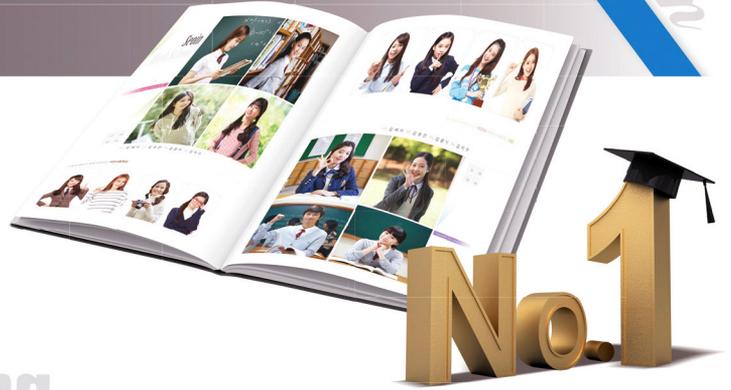
SEO IN PRINTECH Inc.

*Evolution Album*

## Innovation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기보다 미래 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 Design, Print, Binding



보유장비  
현황

### CTP 및 출력시스템

전자동화로 시간당 40장 출력이 가능한 최신 기종  
세계 특허 망점기술인 Squarespot TM(사각망점) 기술을 채용

### 옵셋인쇄 시스템

4COLOR매엽기(1호기) : MITSUBISHI SHEET-FED OFFSET DIAMOND 3000S  
4COLOR매엽기(2호기) : MITSUBISHI SHEET-FED OFFSET DIAMOND 2000  
5COLOR매엽기(3호기) : MITSUBISHI SHEET-FED OFFSET DIAMOND 3000  
4COLOR매엽기(4호기) : IR코팅 RMGT 10

### 디지털인쇄 시스템

HP Indigo 12000 Digital Press  
시간당 3450매 4/0  
최상급 품질 컬러 인쇄 이미지 해상도: 8비트에서 812dpi

### 제본설비

무선라인 : 요시노 무선 온라인  
중철기 : 최대 5콤마까지 가능 일본 OSAKO MODEL - TENER 2548  
접지기 : 스탈접지기 4대, 호리존 16P접지기 1대, 스탈라운드(지도접지) 1대  
재단기 : 컴퓨터 유압재단기 4대



서인프린텍은 접수에서 납품까지 최신장비 및 축적된 실무기술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합니다.

- 원고 및 파일접수
- 색보정 및 디자인 작업
- PDF 변환, CTP 출력
- 옵셋인쇄 or Digital인쇄
- 제본 작업
- 사용자 납품



디지털인쇄기 : HP Indigo 12000 Digital Press 도입



4COLOR 매엽기: IR코팅 RMGT 10 도입



다채로운 디자인과  
다양한 표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서인프린텍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43 (우아동 3가)  
대 표 (ARS) 063 710 0590, 앨범사업부 010-9473-2126

앨범사무실(TEL) 063 710 0590~1 (FAX) 063 710 0599 앨범디자인실(TEL) 063 710 0580~1  
(Homepage) <http://ditec.kr> (E-mai d0570@hanmail.net Webhard d0570 / di1234

우리가  
**희망**입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http://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http://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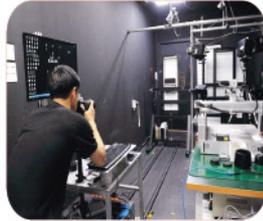
대전 충남북 세종을 책임지는 캐논총판!



## 1층 매장



## 2층 서비스 센터



## 3층 스튜디오 & 아카데미



**Canon**

(주) 카메라대학병원

대전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45-14)  
Tel 042)254-1110 Fax 042)257-4312  
Mobile 010-5431-1110 E-mail cameradr@hanmail.net



CEO 이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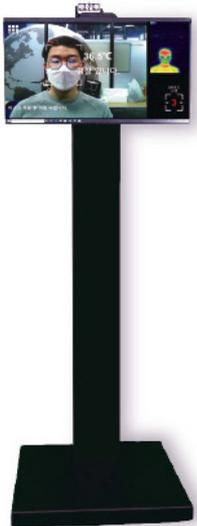
K방역의 선두주자

**TRUONE** co.Ltd

(주) 투루원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50, 디티비안S B동 301호  
Tel 1544-0069 Fax 042)933-8896  
Mobile 010-5431-1110 E-mail truone385@gmail.com

## K방역의 선두주자 엘리자베스 코로나19 1차 방역 아이템 소개합니다! 출입구 부터 발열체크하세요!!



엘리자베스 T-24



엘리자베스 슬림일반형



엘리자베스 슬림멀티형

### 1. 마스크 착용 유무 및 고열자 경고 알림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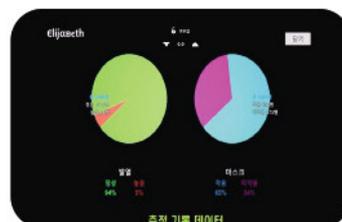


마스크 착용 유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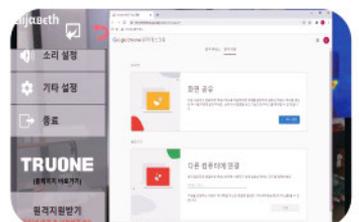


고열자 경고 알림

### 2. 보기 쉬운 방문자 데이터관리 및 신속한 원격지원



즉정 기록 데이터



원격지원받기

# 중고 사진기구 전문 판매 및 교환 전문 알뜰매장

“안 쓰는 사진기자재 무조건 삽니다”



- ① 대형카메라 및 필름카메라 매입
- ② 디지털 카메라, 렌즈 매입 및 보상판매
- ③ 고장 또는 성능이 떨어져 사진이 잘 안나오는  
스트로보(외제, 국산)를 교환 및 수리 (무료출장 A/S 회원에 준함)
- ④ 각종 스탠드 수리 및 교환
- ⑤ 각종 배경 및 소품 파격적 가격
- ⑥ 예식장홀 스트로보 설치공사 및 수리
- ⑦ 스튜디오 매매
- ⑧ 스튜디오 기사 취업 알선

서울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현대프레비앙 B101호

02-3675-6698 FAX 02-745-0094



가나종합사진기구상사

www.gana2000.co.kr

# 전국유일!

전통있는 후지 제품 총판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합니다.

## 후지필름 전품목

은염 Frontier 550/570/7500

잉크젯 Frontier DE-100/DL-600/-S

염료승화 ASK-2500/ ASK-500



FUJIFILM  
Frontier DE-100

인화지, 약품, 잉크 외 사진재료 초특가판매!



EPSON  
SC -P904

# EPSON

엡손 프린터 / 인화지 / 잉크 / 소모품

후지필름총판 미래행복 TEL.051-635-5694

Web | <http://blog.naver.com/mr5694>  
Market | <https://smartstore.never.com/photoro>  
Mobile | 010 - 4598 -3191  
E-mail | [mr5694@naver.com](mailto:mr5694@naver.com)

언택트시대, 전문강사발굴 프로젝트!  
내 생애 마지막 자존심, 이제시작



# FPIC평생교육원 상반기강좌안내

- 아래 강좌는 3주 단기속성 과정으로 6시간교육입니다 -

☑ 스마트폰 잘 찍는법 매주 (수)요일 오후4시~6시

☑ 유튜브 전문강좌 매주 (토)오후4시 ~ 6시

☑ 드론입문과 실전교육 드론사진의 이론과실제

☑ 사진전문강사 스마트폰사진/인상사진  
항공드론사진

특별반

- 교육수료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증 발급
- 교육수료자 중 우수자는 강사로 선발
- 강사 선발자는 본교육원 강사및 사회교육원 강사로 활동

사진산업협동조합연합회

FPIC평생교육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37 유원빌딩 302호

상담문의

1522-4496

# 사진예술 Master과정 연구강좌

윤슬사진촬영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진수업의 완벽한 지름길

“좀 더 사진을 잘 찍고 싶다.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것이 모든 사진작가들의 열망일 것입니다. 사진기술 전문가 김정대 와 함께 작가의 열망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강좌” 로 주 1회 14주 과정이며, 회당 4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21세기 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최고테크닉 기법과 이론, 실습을 통한 철저한 교육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색 관리, 촬영, 포토샵으로 이어지는 프로사진가를 위한 내용이며, 전시를 위한 작가들을 위해 작품, 도록, 액자, 전시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평범함을 넘어서는 사진예술작품을 꿈꾸는 사진작가” 를 위해 다양한 기법과 이론, 실습을 통한 철저한 교육으로 초대합니다

윤슬사진촬영연구소 원장 김영훈

**교육안내**

1. 모집인원: 10명 이내(선착순 마감)
2. 교육과정: 주 1회 14주 과정(회차당 4시간 교육)
3. 수강료: 2,000,000원
4. 전화(문의): 010-9072-0011, 031-574-0020
5. 주소: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 419-88
6. 입금계좌: 국민은행 631601-01511647 김영훈

**강사안내**

Look & Feel Studio 대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법제 위원장  
 삼성, LG, 펜텍엔큐리텔, 엠텍비전 연구원 교육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세미나 강의 다수  
 전 (사) 한국프로사진협회(KPPA) 교육 위원장  
 전 중앙대 지식 산업 교육원 인물 콘텐츠 과정 강사

회 차	과 목	주 제	
1	Color Management System (색관리)	C.M.S 개론	컬러기초, Monitor, 광원, Software 색설정
2		Monitor Profile 작성	Monitor/Camera Profile 작성이해, 각 단계 설정 및 검증
3		Printer Profile 작성	Printer 이해, 출력 설정, 컬러 판독 이해
4	Lighting	조명학 개론	기초 조명, 각종 조명 장비 이해
5		조명 실습 1	Key, Fill, Top 개론과 실습
6		조명 실습 2	Back, Eccent, 개론과 실습1과 통합
7		인물, 제품 조명	인물, 오브제 조명 실습
8	Raw & Photoshop	야외 조명	야외 촬영과 조명 실습
9		사진 선택과 장기보존	사진 태그 및 등급, 효율적 관리, 보존
10		Raw Processing 1	도구 및 탭 이해와 분석, 활용
11		Raw Processing 2	Raw 응용하기, 톤 분리, 미세 조정
12		Photoshop 1	조정 도구 이해와 분석.
13		Photoshop 2	각종 특수 기법 응용, 미세 마감 리터칭
14	Display	Printing & Exhibit	프린트, 용지, 도록, 액자 목재 및 유리 종류, 보존

#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만을 위한 LED 조명 할인 행사

소상공인 지원금 사용 환영

NANLITE

크로마키 프로필 촬영 LED 조명

Compac 200B  
2라이트



2,000,000 원

1,600,000 원

iULIGHT

천정, 탐조명 추천 LED

IU-60B  
3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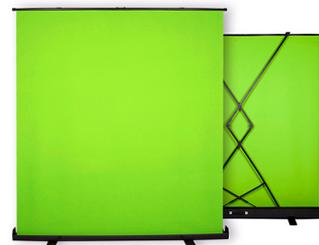
1,050,000 원

840,000 원

유쾌한생각  
PLTHINK

원터치 크로마키 설치

이동식 크로마키  
1.8 x 2m



200,000 원

160,000 원

NANLITE

Forza 300  
2라이트



2,380,000 원

1,900,000 원

NANLITE

FS-300  
2라이트



1,000,000 원

800,000 원

NANLITE

Mixpanel 150  
2라이트



2,300,000 원

1,840,000 원

오직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들만을 위한 특별한 행사!  
LED 장비 장만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 협회 회원임을 증명 후 구매가 가능합니다.

# 갤럭시로 보는 세상,

# 포도포도

총 상금  
6,000만원

# 콘테스트

접수기간

2022.

5. 23.(월) -

7. 15.(금)

## 제출방법

- 참가자격 : 제한없음
- 출품 및 평가 : 1인당 2점(주제당 1점, 수상은 1인 1작품)  
주제적합성, 홍보성, 독창성, 작품성에 기준하여 평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gumiphoto.com)
- 제출규격 : JPG파일 형식(3MB이상 30MB이하)
- 해상도(픽셀) : 1200x1600이상 권장  
(원본이미지 제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T.070-4128-2795

## 시상내역 총 상금 6,000만원

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	청소년 특별상 (14~19세)
수상자	1	3	5	7	10	65	3
상금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만원	삼성휴대폰

※제세공과금(22%)은 수상자 본인 부담입니다.

## EVENT

주제1,2 모두 출품시 **각각 보너스 5점 추가!!!**

## SAMSUNG

### 주제1

## 나의 일터를 담자!

전국 근로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  
(지역제한없음)

### 주제2

## 구미 어디까지 가봤니?

구미의 문화 관광지, 기업등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  
(구미지역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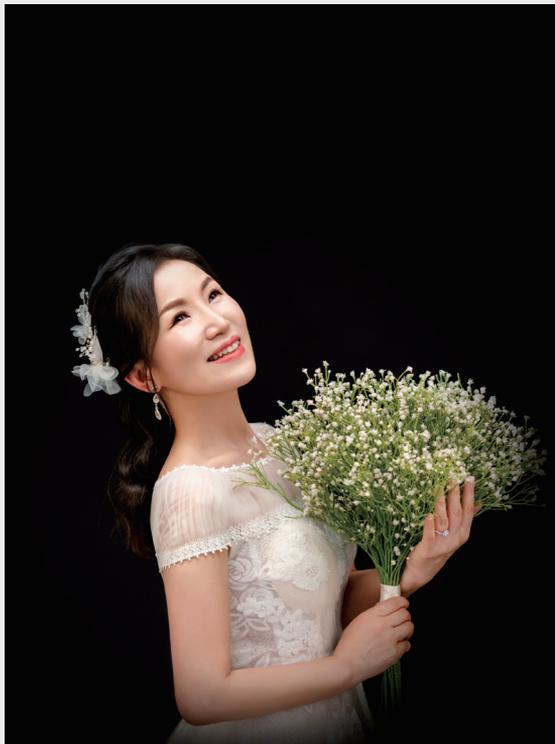


공모요강  
상세보기

# PRO **portrait** coverstory

# 7

2022 JULY  
VOL. 534



작가노트: 아름다운그녀  
중년의 여성은 자기관리에 따라 자신감이 결정된다.  
당당하고 매력적인 중년의 여성은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으로 촬영하였다.

작가 : 정태영

- 현 사랑이야기 대표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위원장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북지회장
- PPA(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America) MASTER PHOTOGRAPHER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옥기

발행일 : 2022년 7월 1일

창간일 : 1977년 9월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우)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TEL. 02)4545-600(代), FAX. 02)4545-608

Homepage: <http://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mailto:kppa1955@hanmail.net)

Webhard :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_kppa1955 / PW\_1234

## 편집위원

고 문 : 박성열

홍보 위원장 : 나영균

기획 위원장 : 한장훈

협회주재기자 : 이해승

인 쇄 : (주)서인프린텍

## 온라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

월간 Pro Portrai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간 Pro Portrait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협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CONTENTS

---

발행인 메시지	16	제63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KPPA's 인상사진 작가전	17	무용가의 리듬_김태만 / 가족_박금서 / 핑크빛 사랑_정태영 신사의 품격_천우철 / The beauty of golds_홍기채
KPPA's EDU	22	사진복원 스토리 / 김충식
	23	인스턴트에 농락당한 하루 / 임만준
	24	사진은 타임머신 / 김도형
	26	그리스 로마 미술의 재조명 '신고전주의' / 신현국
	28	세상의 새로운 흐름 '메타버스' / 이서영
KPPA's 업체 탐방	31	아트 테크놀로지 분야의 선도기업 / 신호미
KPPA's 스튜디오 탐방	32	스팟라이트 사진관
KPPA's 타임머신	34	寫眞館영업 成功하려면 이래야 한다. (2)
KPPA's 지회 작품전	38	서울지회 / 부산지회 / 대구지회 / 대전지회 울산지회 / 경기지회 / 충북지회 / 충남지회 / 경북지회
KPPA's 기획사진전	56	다둥이가정의 행복한 가족사진전
	58	"삶의 자리, 광주에 살다"
KPPA's 순수사진 작가전	60	아름다운 선셋_권혁만 / 고향으로가자_김동민 / 까막딱다구리의 사랑_김선식 강골 연못_김현호 / 한강일몰_이동재 / 계절의여왕_이용일 양귀비_이정휘 / 물총새_정세화
KPPA's NEWS	68	제2차 이사회 및 지회장 연석회의
	70	P&I 2022 제31회 서울국제사진영상전
	72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73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 소상공인 업종연계 공동특화 지원 사업 신청서
	74	제60차 정기총회 및 제42회 경상남도지회 하계연수대회 盛了
	76	제42회 부산지회 촬영대회 盛了
	78	2022년 대구·경북 합동 하계 세미나 盛了
	80	제28회 강원지회 연수대회 盛了
	82	제24회 울산광역시지회 연수대회 개최
	84	제주지회, 호남권 사진 연수대회 盛了
	86	2022년 충청권 촬영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88	영실기암과 오백나한-명승(名勝) 제84호
	90	서울지회 광진지부 제17회 촬영대회
	92	심준섭 작가제도 위원장 초대展
	93	김정대 작가제도 위원장 순환의 이데아 전(展)
	94	김영훈 남양주.구리지부장 (사)대한민국 남북통일 예술협회 국회의장상 受賞
	95	제39대 회장, 감사선거 공고
	96	회원 경조사 안내 / 편집후기

## 제63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8월 28일, 29일, 30일 3일간 여수에서 열려



회장 정 옥 기  
(사)한국프로사진협회

6월에는 지회별로 세미나가 열려 오랜만에 회원들이 모여 화합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6월 1일 경남지회를 시작으로 6일 대구·경북지회 세미나와 부산지회세미나, 10일에는 강원지회 세미나, 12일 울산지회세미나, 14일과 15일에는 제주, 전남, 광주, 전북의 호남권세미나, 22일에는 충북, 충남, 대전지회의 충청권세미나, 29일과 30일에 서울지회의 연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지회 세미나에서 회원님들이 우정과 화합을 위해 공부하고 촬영대회를 열어 기술을 연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원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낸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잠시나마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신 각 지회 지회장님과 사무국장, 임원, 회원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각 지회와 지부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부와 지회가 협동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만에 열리는 제63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는 8월 28일부터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고 회원 모두가 크루즈에 승선하여 여수밤바다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원의 지지와 격려로 인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 當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회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달 7월에는 2일 인천지회세미나, 11일 경기지회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회세미나가 종료가 됩니다. 초복(初伏), 중복(中伏), 소서(小暑), 대서(大暑)가 있는 7월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무더위 조심하여 건강하시고 반가운 얼굴로 8월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목** : 무용가의 리듬
- **촬영정보** : Canon EOS 1-DX, 캐논50m, 1.4, F/5.6, S/:7초
- **작가노트** : 무용수의 춤을 7초 동안 노출을 하여 춤의 패턴 의상의 화려한 선 면의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 **작가소개** : 김태만
  - 메모리스 스튜디오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 사무국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프로인상사진 초대작가
  - 울산사진협동조합 사무국장

▪ **수상경력 및 전시**

- 1997 필리핀&스모키 마운틴 사진전
- 1998 피드백 사진전
- 2003 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 2세 사진전
- 2005~2019 단체사진전 다수
- 2016 니콘사진 촬영대회 금상
- 2016 추천작가 공모전 금상 외 ~ 2021 다수





▪ 제 목 : 가족

▪ 촬영정보 : Canon EOS 5DS, EF24-70mm, 1/125, f/8, ISO/200, 해상도 : 300.00 인치당 픽셀

▪ 작가소개 : 박금서

- 노벨스튜디오 대표
- 현 노벨스튜디오 대표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품심사위원



- **제 목** : 핑크빛 사랑
- **촬영정보** : NIKON Z6-2, F7.1 1/60, ISO200, 70-200mm
- **작가노트** : 결혼한 부부는 결혼 후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보다는 애증이 쌓인 억지 웃음을 짓는 경우가 많다. 결혼한 지 53년이 지난 어르신들이 서로 마주 보며 미소 짓는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느낌이 들게 된다.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난 후에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된다.
  
- **작가소개** : 정태영
  - 사랑이야기 구미점 대표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위원장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북지회장
  - PPA(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America) MASTER PHOTOGRAPHER





- **제 목** : 신사의 품격
- **촬영정보** : CANON 5Dmark3, 24-70mm, F8, 1/125, ISO 100
- **작가노트** : 한세월 품위와 품격으로만 살아온 어른의 몸에선 좌중을 아우르는 품격이 묻어난다.  
위 작품은 미국프로사진협회 PPA의 2017국제사진공모전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에 출품하여 General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 **작가소개** : 천우철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남지회 양산시지부 지부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 2017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Silver Award
  - 2018~2019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Bronze Award
  - 2021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Silver Award
  - 2021년 PPA MasterDegree(사진명장) 수여



- 제목 : The beauty of golds
- 촬영장소 : 스튜디오 세트장
- 작가노트 : 순천지역 전문대학 피부미용과 졸업 작품 촬영 시 미국 PPA 출품목적으로 작업을 하였고 1999년 컨벤션 수상 작품.
- 작가소개 : 홍기채
  - 순천 스튜디오한보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미국PPA Certified & Master사진가



# 사진복원 스토리



김중식 대표 / 사진병원



## 복원

1980년대 습기 손상된 사진  
20x25cm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역사가 된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일상을 겪고 성장을 한다.

사진의 가치는 당시의 추억과 감정을 일깨워 준다.  
사진기록의 가치는 추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사롭지 않은 소년의 피아노 연주모습,  
소년은 이제 불혹(不惑)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사진복원을 위해 전체적인 색상을 보완하고,  
머리 형태가 없는 것은 윤곽을 설정하고 머리 형태를 잡았다.

사진 한 장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머릿결을 자연스럽게 살려 완성을 하였다.

〈사진병원 제공〉

# 인스턴트에 농락당한 하루

아침 일찍 조간을 펴들고 큰 제목을 순서로 1면 2면... 제치고 훑어 내려가던 내 시선은 '3분 내 완성 자동 무인 카메라 등장'이라는 사회면 기사에서 딱 멈추었다. 현재 인기가 대단하며 실용화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는 갑자기 어안이 병병해졌다. 갑작스레 흥두꺼처럼 나타난 마법사에게 내 모든 것을 탈취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열 일을 제쳐 놓고 그 마법사를 만나봐야겠다는 충동이 일어 그 기계가 설치됐다는 모 백화점엘 갔다. 커피 판매기 크기 정도였고 옆에 사람이 앉을 곳만 설치된 간단한 무인 기계였다. 대뜸 그 '스튜디오'에 앉아서 백 원 짜리 동전 열다섯 개를 바꿔 하나씩 구멍에다 집어넣고는 촬영 버튼을 꾹 눌렀다. 촬영 신호등이 빨갈게 켜졌고 연이어 약 5초 간격으로 번쩍이는 조명과 함께 4번을 찍는다. 정확히 3분을 기다리니까 커피잔이 떨어지듯 사진 4매가 나란히 연결되어 툭 떨어진 다. 분명코 임만준. 내 얼굴이다.

사진쟁이가 분명 하건만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사진쟁이 모습은 없었다. 약간 부어터진 것 말고 크게 흡집을 데는 없었지만, 그 얼굴 하나 가득 수심이 담겼다. 전국 사진쟁이들의 까맣게 타들어 가는 가슴도 클로즈업 돼왔다.

“어쨌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구먼”

벌어졌던 입은 다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기한 얼굴로 종얼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계의 진보가 안겨주는 소외감에 씩씩함을 달랠 수 없었다. 한국의 사진 도입 100년사에 기록으로 남길만한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뒀안길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어찌랴.



인스턴트 기기

“인스턴트 사진” “무인 촬영기” “3분 내 완성”



白石 임만준 자문

그 자리에 둘러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알듯 모를 듯 희희덕거리던 모습을 안고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 편집자 주(註)

시대의 변화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한 것일까? 인스턴트 사진의 진화는 무인 우정 사진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작금(昨今)의 시대에서 우리가 생존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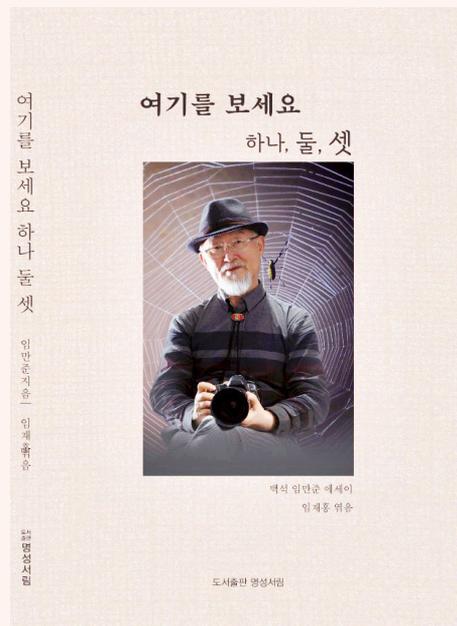
## 책 소개

△ 작 가 : 임만준

△ 제 목 :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 출판사 : 도서출판 명성서림

△ 가 격 : 18,000원



# 사진은 타임머신

사진을 찍다 보면 조금은 유별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그날도 한 여자 아이가 엄마랑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아이였다. 피부가 드러난 부위마다 한껏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신과 눈에 확 띄는 요란한 치장을 하고 있었다.



김도형 기획위원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 들어보니 아이는 중학생인데 엄마랑 둘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한다. 얼핏 보면 문신과 치장으로 꽤 세계 보이는 아이였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니, 유독 눈이 예쁘고 착한 아이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귀엽고 예쁜 아이가 왜 이런 문신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을까?' 어린 학생이 그렇게 많은 문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면 유별난 아이로 보일 수밖에 없다. 남과는 다른 모습 때문에 '거참 특이한 아이네'라고 생각하면서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겠다. 그러니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근심도 보통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내가 본 엄마의 표정에서도 근심 어린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아이도 이런 세상의 시선이 부담되었을 것인데도 왜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 나는 문득 그 아이에게 선물 같은 사진 촬영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외모에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언가 자기를 봐달라는 심정으로 독특하게 표출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이런 표면적인 행동 배경에는 반드시 과거의 아픔이 내재해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나는 그 아이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내면을 보고자 했고,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아직 어려서 그럴 거야, 하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비록 어린 학생일지라도 그 나름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먼 인생 여정을 생각하면 무언가 길잡이가 필요해 보였다. 인생이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온 길이 어둡다고 해서 앞으로도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니다. 힘든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고정

된 과거의 경험보다는 매번 만나게 되는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언제나 밝고 따뜻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문신이나 요란한 치장 속에 묻혀버린 이 아이만의 아름다움이랄까? 아니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이만의 진짜 표정을 찾아주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미치자 어머니를 잠시 내보내기로 했다. 이럴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집중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엄마를 잠시 밖에 나가시라 해놓고는 “꼬마야. 너 되게 예쁜 아이구나~~”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저씨 뭘 소리 하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기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저씨도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단다. 아저씨 경험으로 보면 너에게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던 모양이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넌 아주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 그치? 아저씨 눈에는 네가 그런 아이로 보이는데 맞니?” 슬며시 일어나서 스튜디오 조명을 모두 끄고 라이트 하나만 켜 채 다시 자리에 앉았다. “꼬마야. 아늑하지? 인생에는 언제나 선택이 중요하단다. 이 아늑한 공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하다고 할 수도 있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선택했든 중요치 않아.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학교를 꼭 다녀야 한다는 의무감도 중요하지 않아. 인생이라는 긴 항로에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

네가 촬영을 끝내고 여기를 나가면 다시 올 일이 없을지도 모르며 우리가 길에서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하고 물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는 인연! 그러니 촬영하는 동안은 창피해하지 말고 어색해하지도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노동하듯이 힘들게 찍히는 게 아니라 재미나게 놀다가 찍히는 거거든. 신나게 웃고 떠들며 놀다 갈래? 아니면 아무런 감정 없이 ‘무뚝뚝하게 얼굴만 증명하는’ 사진처럼 찍히고 갈래? 이걸 너의 선택이야.” 나는 속으로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자문하는 순간, 무언가 공감하듯 잠시 머뭇거리던 꼬마는 마침내 크게 웃고 떠들면서 촬영에 임했다. 그렇게 30분 가량 신나게 촬영하자 우리 둘은 꽤 친해졌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밝고 좋은 아이였다.

“아저씨, 신나요! 좋아요! 하이 파이브!”

즐겁게 촬영을 마친 후 어머니와 아이에게 같이 작업실로 들어오게 했다. 셋이 둘러 앉아 찍은 사진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활짝 웃는 딸아이의 사진을 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다. 울먹이면서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 딸 참 굽다.”라고 연거푸 신음하듯 토해냈다. 아이는 이런 상황이 민망했는지 빨리 나가자고 떼를 쓰며 엄마를 재촉했다. 그때 갑자기 내 마음이 울컥 올라 왔다. “꼬마야, 엄마가 왜 울고 있는지 네가 그것을 이해할 때 쯤이면 아마도 엄마는 네 곁에 안 계실 거야. 그러니 잘해드려라.” 어머니는 감정이 솟구치는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잠시 망설이던 딸은 휴지를 들고 와 엄마 눈물을 닦아주었다.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조금 전까지 엄마에게 욕하고 떼쓰던 아이가 아니었다. 갑자기 바뀐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잘했다 꼬마야. 어렵지 않지? 그렇게 엄마랑 풀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수줍게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때 다 싶어 아이에게 다시 한 가지를 제안했다. “자, 방금 촬영했던 웃는 사진, 이걸 엄마를 위한 선물이야. 이

건 네 증명사진으로 쓰지 않을 거구 아저씨가 다시 찍어 줄게. 아저씨는 평생 못 폰 속제를 너는 아주 잘 해냈구나. 잘했다.” 사실 증명사진은 치아가 보이면 안 되는 사진이기에 다시 찍어야 했다. 단지 아이의 숨은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과정을 한번 겪은 것뿐이었다. 이제야 아이는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고, 나는 그 아이를 다시 촬영하고 싶었다. 아이는 촬영실로 다시 나가 편하게 의자에 앉더니 자기도 이런 분위기가 좋았는지 얼마 몰래 내게 고맙다고 엄지척을 보내주었다.

인물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내가 찍어준 사진 한 장은 꼬마가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타임머신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과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진 한 장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이것이 수고를 마다하고 한 사람의 사진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찍어내는 내 기대이고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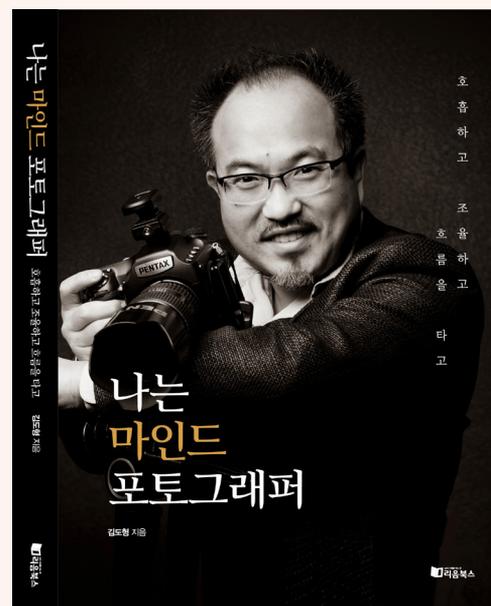
## 책 소개

△ 작 가 : 김도형

△ 제 목 : 나는 마인드 포토그래퍼

△ 출판사 : 리움박스

△ 가 격 : 18,000원



# 그리스 로마 미술의 재조명 '신고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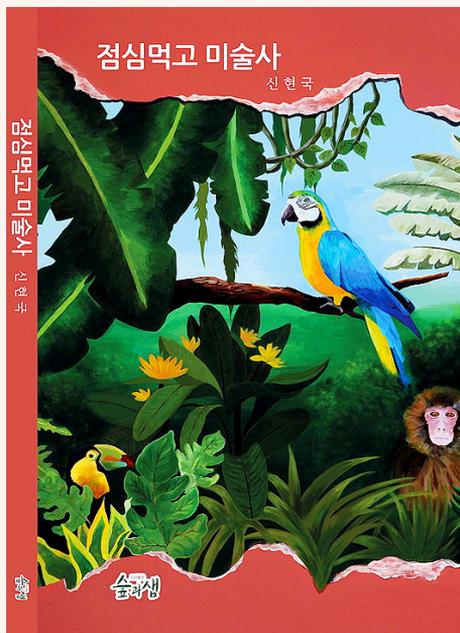
신현국 작가

신고전주의는 혁명 후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술사조로 혁명의 이상을 담은 회화작품들이 등장한다. 나폴레옹의 궁정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 Louis David)는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화가이다. 그는 혁명가이면서 화가로서 혁명의 이상을 회화에 담고자 하였다.

신고전주의는 그리스미술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미술의 조각을 통해 그들의 미적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리스미술의 근본은 자연의 모방이며 그들이 말하는 자연이란 다음 아닌 인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인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인체를 담아내는 것이다.

## 책 소개

- △ 작 가 : 신현국
- △ 제 목 : 점심먹고미술사
- △ 출판사 : 숲과샘
- △ 가 격 : 20,000원



그들은 인체를 소중히 생각했으며 늘 아름다움을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의 회화나 조각상은 인체를 묘사하되 이상적인 신체의 조합을 통한 완벽한 인간상이 묘사되었다. 여신을 전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간 이상의 완벽함으로 인해 우리는 에로티시즘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사상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상계의 인간들은 플라톤의 동굴을 나와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그리스 미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19세기 폼페이 유적의 발굴 등을 통해 고전주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신고전주의 화가들에 의해 재탄생하게 된다.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바로크 화가들과 다르게 색보다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바로크의 역동성 보다는 그리스 미술의 안정적 구도를 선호하였다.

다비드의 유명한 그림 '알프스를 오르는 나폴레옹'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품없는 조랑말을

타고 오르는 키 작은 나폴레옹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표현한 이 그림은 그리스 로마의 정신을 통해 나폴레옹의 위대함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다비드는 동료이자 자코뱅파의 수장인 '마라의 죽음'을 통해 혁명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마라가 욕실에서 살해 당하자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그의 희생이 성스러운 죽음임을 그림을 통해 알리고자 하였다. 한편 자코뱅파와 지롱드파의 지루한 대결로 프랑스의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자 다비드는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라는 그림을 통해 정치적 상황을 표현하였다. 로마 초창기 로마인과 사비니 족과의 중재를 위해 나선 여인들의 심정을 현재 프랑스인들의 마음으로 환유한 작품이다.

다비드는 회화에 현실을 반영하고 회화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화가였다. 다비드와 함께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앙그르는 나폴레옹의 누이동생 카롤린 뤼라는 그린 '오달리스크'를 발표했는데 다소 기형적으로 길게 늘어트린 허리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가장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보티첼리가 비너스의 어깨를 비정상적으로 늘어트린 것과 같이 묘사하였다.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인체의 이상적 표현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그리스 로마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다.

19세기 초 혁명의 실패로 인한 민중의 좌절감은 문학과 예술로 나타나는데 이를 낭만주의라 부른다. 낭만주의 미술은 인간 내면의 감성을 표현한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실을 떠나 개인의 감정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가인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는 그림을 통해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무차별한 폭력을 고발하고자 하였으며 프랑스의 낭

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와(Eugene Delacroix)의 대표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1830년 7월 혁명을 그려낸 작품으로 부르봉 왕조를 무너트리고 루이 필리프(Louis Philippe)를 추대하여 새로운 왕정을 수립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그림이다. 들라크루와는 1830년 혁명에 참여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작품을 만들었다. 시대가 바뀌고 화풍이 변하여도 회화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믿음에 대해 들라크루와를 비롯한 낭만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통해 보여주었다.

한편 들라크루와는 사진 애호가로도 유명하다. 사진 발명 후 그는 드로잉을 위한 용도로 사진을 즐겨 사용했으며, 심지어 사진협회 회원이기도 하였다. 19세기 낭만주의와 함께 도래한 사실주의 화풍은 사진의 발명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맞서면서 19세기 미술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회화는 사진이라는 정적을 맞아 일부 후퇴하게 되지만, 숙고의 시간의 통해 보다 완숙한 미술사조의 탄생을 예고한다.

넓은 농경지를 형성하고 있던 마곡지구는 이제 IT산업의 첨단 연구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변화했다. 미래로 나아가는 마곡의 이미지를 파문이 퍼져 나가는 형상으로 해



'풍경\_빛의 물결', 김주환 외  
마곡 사이언스타워

석, 도시 공간 위에 감성적 물결의 작품을 설치했다.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 25부작' 선정 작품으로 작가는 버를 형상화한 듯, 농경지의 이미지를 통해 마곡의 특성을 작품화했다.

# 사진 기술이 놓쳐서는 안 될 신기술 세상의 새로운 흐름 '메타버스'



이서영 갤러리360 아트매니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하여 4차 산업혁명 이후 가장 주목을 받는 기술은 바로 '메타버스 (metaverse)'이다. 이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의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2020년도에 들어서 가장 많은 IT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메타버스'는 수많은 부수적 기능 요소들을 끌어오며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메타버스 프로그램 사용 증대로 인해 상거래 활동, 새로운 직업 등이 메타버스를 통해 출범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증강현실 (AR :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는 메타버스의 구축에 중추적 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메타버스를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기업이 함께 만들고 있는 [새로운 장]. 모바일 인터넷을 잇는 후계자가 될 것”  
- 마크 저커버그 (구. Facebook 현. Meta 대표)

## - 증강현실 (AR :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증강현실은 AR (Augmented Reality)로 줄여 부르는 기술이며, 사전적 정의로는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덧입혀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로 조성된 현실.'로 알려져 있다. 가상현실은 VR (Virtual Reality)로 불리는 기술이며, 사전적 정의로는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로 정의되고 있다. 최근 VR/AR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일반 대중들은 언택트, 비대면으로 생활하고 문화를 즐기는데 본인도 모르는 새 또는 편리함을 느끼면서 메타버스 기술들을 이용하게 된다. 가령 한샘 등의 가구 판매 사이트에서는 VR을 이용하여 가상으로 배치된 가구와 인테리어로 소비 욕구를 높인다던가, AR 기술로 실제 소비자의 공간에 증강현실로 재현된 가구를 배치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사용도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켰다. VR/AR 기술은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서도 빈번히 이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하우스미술관(Koo House Museum)은 AR 기술을 통해 소장 또는 전시하고 있는 미술품을 소비자가 직접 집에 걸어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오픈하여 언택트 관람객의 관심을 끌기도 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세종문화회

관 등의 국내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도 VR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 시국에 한정적인 생활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에게서 집에서 즐기는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양태의 기술 활용 범위를 만들어 내었다. VR 기술의 경우, 개발 방식에 따라 활용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메타버스 플랫폼(Platform)**

메타버스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인지도를 가진 플랫폼 세 개가 있다. 2004년에 설립한 '로블록스 (ROBLOX)'는 미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55%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집계되어 '미국 초등학생의 놀이터'로 불리고 있다. 또한, 로블록스는 레고 형태의 캐릭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하여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게임 내에서 쓰이는 로블록스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분석되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로블록스는 온라인상의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으며 2020년 하루 사용자가 3000만 명을 넘었고 미국의 청소년층의

절반 이상이 관련 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2020년 미국 스타트업 'Gather Presence'에서 출시한 협업 기능이 포함된 '게더타운(Gather Town)'이 그 두 번째 플랫폼이다. 게더타운은 비교적 더 넓은 연령층이 접근 가능한 아바타를 활용해 직장 내, 외부 협력 업체, 박람회 등에 업무 협력이 가능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상 오피스 플랫폼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특히 게더타운은 화상회의, 비디오 컨퍼런스 솔루션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Zoom, Google Meet, Webex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도 포함하여 일대일, 다대다로 화상회의까지 동시에 가능하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상공간을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선사하는 기능은 Zoom 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와의 차별화된 포인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경희의료원'에서는 국내 의료업계 최초로 게더타운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메타버스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실'을 오픈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NAVER에서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네이버Z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네이버Z는



‘제페토 (ZEPETO)’를 출시하여 2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성장세를 입증하였다. 제페토 사용자 약 2억 명 가운데 80%가 10대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네이버 대신 유튜브로 이동하였던 MZ세대를 다시 네이버로 불러오는 신성장 동력으로 손꼽히고 있다. 제페토는 가장 ‘사람’을 닮은 3D 캐릭터로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그 아바타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제페토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가 제페토 내에서 아바타의 옷을 디자인하거나 가상 물건(아이템)을 제작하여 판매, 구매하는 상거래를 하기도 했으며, 그것이 실제 경제활동과 이어질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제페토 덕분에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는 신직업까지 생기며 제페토 가상활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생산 활동을 공교육에 한 커리큘럼으로 도입하는 사례도 빈번히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명품 브랜드에서 제페토를 활용해 가상 명품 가방, 가상 쇼룸 등을 선보였고 실제가 아닌 물건임에도 가상 명품 가방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제페토의 성장에는 K-POP 문화가 빠질 수 없다. YG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는 제페토를 통해 가상 팬 사인회를 열어 4600만 명 이상의 팬들을 만나 소통하였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의 K-POP 업체들이 170억 원을 네이버에

투자하였다. 이처럼 K-POP 팬덤의 파급력과 결집력이 제페토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볼 수 있다.

**- 현 메타버스 시장의 흐름**

앞서 설명한 기술들로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상활동, 가상세계는 말 그대로 전부 가상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적 정의와 범위를 선 긋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붙으면 상장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기술력이 전부 한번에 보장되어 주가가 무조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수익구조 등을 만들어 내지 못한 많은 기업은 신뢰성을 잃으면서 ‘메타버스’ 단어 관련 주가는 하락장을 치고 말았다. 2022년 들어서는 관련 주가의 등락이 아직 미지수이다. 어떤 형태로든, 방향이 바뀌더라도 이 신기술들은 지속해서 발전하고 변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는 점점 기술적 발전을 통해 쇼핑, 관광, 문화생활 모든 분야가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실재를 재현하는 목적의 사진에서 철학적 깊이, 다양한 관점을 담은 사진예술 또한 현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발전해야 하며, 손 그림에서 사진이라는 기술로 발전하듯이 진화하는 기술들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 아트 테크놀로지 분야의 선도기업

지난해 본 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작가들의 온라인 전시회를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갤러리 360을 소개 한다.  
 갤러리 360은 미술시장의 패러다임을 IT와 ART의 융합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신효미 갤러리360 대표

## Q. 갤러리360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스마트 아트 플랫폼으로 비대면 전시 솔루션인 VR 갤러리 전시 서비스, D-BOOK, 작가 지원 프로그램, 작품 판매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예술과 IT 융합 분야의 혁신기업입니다. 각박한 현대인의 삶 안에서 예술이 숨 쉴 수 있도록 세상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하는 전시장으로, 기업에서는 상품들을 전시해 쇼룸으로 사용됩니다.

월 15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 30점까지 전시를 할 수 있으며, 누구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 Q. 갤러리360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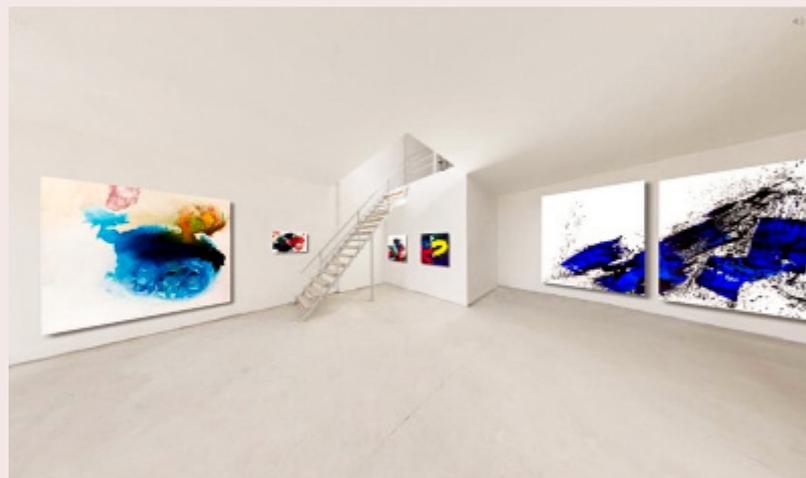
A. 많은 사용자를 통해 국내에서는 기술성, 성장 가능성, 시장성을 검증받았기에 글로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를 향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VR 갤러리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360도 NFT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NFT와 VR 갤러리 전시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Q. VR 갤러리 전시 서비스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A. VR 갤러리 전시 서비스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시의 해답이 되어줄 온택트 전시 솔루션입니다. 갤러리360 플랫폼에서 VR 공간을 선택하고 그 안을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 넣어 아이디어를 비대면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VR 공간 템플릿 30종, 도슨트, 동영상, 유튜브, 3D 등 멀티미디어 지원, 배경음악 제공 등 전시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가뿐 아니라 학교, 학원, 기업, 단체, 공연예술계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전

〈글 박예슬 갤러리360(주) ANE 전략기획팀〉





▲ 전주 객사점

## 스포트라이트 사진관

새로운 촬영법과 리터칭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가수현 대표가 운영하는 사진관을 4월 영화사진관, 5월 오늘여기우리, 6월 사진창고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스포트라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Q. 스포트라이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A.** 졸업 후 서울에서 광고사진을 하다가 사진영상학과를 대전에서 다녀서 그 대전에서 사진을 해보아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전 원도심이었던 은행동에서 공간을 만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진관이 어느덧 20년을 훌쩍 넘어갔네요. 20주년 기념으로 은행동의 스포트라이트 사진관의 공간을 더 넓게 꾸며보았답니다.

**Q. 스포트라이트를 여러 군데 운영하고 계시는데, 본점은 대전입니까?**

**A.** 네, 맞습니다. 대전 은행동이 본점입니다. 대전 은행

동으로 시작해서 서울 가로수길점, 성신여대점, 이대점, 대전 둔산점, 롯데점이 만들어지다 보니 어느덧 대전 가양점, 대전 관저점, 청주 성안길점, 청주 충북대점, 전주 객사점, 천안 신불당점, 대구 동성로점, 부산 서면점, 순천 중앙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만들어질 공간에 대한 설렘이 가득합니다.

**Q.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어떤 사진을 주력으로 촬영하고 있습니까?**

**A.** 증명사진과 기념사진 촬영을 주로 하고 각종 박람회나 행사에도 초대되어 현장에서 많은 분과 소통하고

즐기며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공간대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명과 기념사진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제일 어려운 촬영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진관이나 촬영을 하고 있기에 남들과 차별화된 공간, 사진을 꾸준히 연구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Q. 스포트라이트가 고객에게 어필하는 가장 큰 매력은 무엇입니까?**

A.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 방문해주는 분들 한분 한분과의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진사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촬영법이나 리터칭의 경우도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해보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수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습득이 가능하여,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Q. 스포트라이트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더 열심히 성장하여 많은 지역에 스포트라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고객분의 인생 기록을 많이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사진관 하면 스포트라이트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취재: 한장훈 기획위원장〉

〈인터뷰: 가수현 대표 & 김형섭 총괄실장〉



▲ 순천 중앙점



▲ 대구 동성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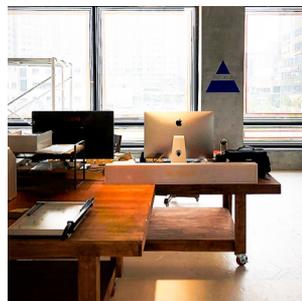
▲ 부산 서면점



▲ 청주 충북대점



▲ 청주 성안길점



▲ 천안 신불당점



▲ 대전 관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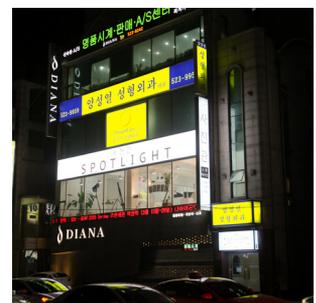
▲ 대전 둔산점



▲ 대전 은행점



▲ 대전 은행점 4층



▲ 대전 괴정점

## 寫眞館영업 成功하려면 이래야 한다. (2)

차昌根 (中央寫友會.研究委員)

### 4. 홀의 조명을 밝혀라.

도심의 대형 사진관은 그래도 사진관 홀이 크고 밝지만,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의 사진관 홀은 비좁고, 어둡다.

물론 넓게 홀을 갖추고는 싶지만, 여러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홀을 잘 이용해 넓어 보이게 하는 아이디어는 왜 동원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사진관의 홀은 넓고, 밝아야 한다. 그래야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래야 손님이 사진에 여유를 갖게 된다.

답답해 보이는 좁은 홀에, 또 어두워 보이면 구멍가게에서 사진을 찍는 기분이다. 큰 사진은 믿어지지 않는다.

증명사진 정도는 동네 사진관에서 찍지만, 조금 중요하고(?) 큰 가족사진은 일부러 시내 중심가의 큰(?) 사진관에서 찍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필름으로 찍고, 현상액도 똑같고 또, 같은 봉투에 담아주는 사진이어서 웃기는 얘기가 될지 모르나, 아니 컬러 사진의 경우는 도심에서 찍었거나 변두리에서 찍었거나, 같은 현상소에 맡기

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넓고 밝은 사진관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러니 사진도 더 고급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의 사진관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집도 아닌데, 벽을 헐어 창을 낼 수도 없고, 또 돈 들여 치장할 수도 없으니? 그것이 문제다.

돈 벌기 위해 사진관을 차렸으면 돈을 들여야 한다. 벽을 헐어 창을 낼 수는 없더라도, 새로 밝게 도배를 하든지, 이미테이션 창을 만들든지, 조명 시설 정도에는 돈을 투자해야 한다. 즉, 침침한 벽을, 조금 고급 벽지로 도배해야 한다.

그리고 벽면에는 조금 비싼 조명 등을 달아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흔히 홀과 촬영실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멋진 커튼을 열면, 전체가 홀이요, 촬영실인 그런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한다.

옛날에 촬영실과 홀을 냉정하게 구별했다.

그러나 누드를 찍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탁 터놓고 장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명도 꼭 촬영실에만 갖춰 놓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조명은 홀에도 갖춰 놓아, 홀의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 특히 홀에 있는 양철 캐비닛 따위는 치워 버려야 한다.

홀에는 되도록 간편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응접세트(비록 험 것이라도, 깨끗하게 뺀 카바면 된다) 하나만 이면 족하다. 소위 말하는 접수 카운터 대(台)도 걷어 치워 버려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충분히 설명한다) 되도록, 넓어 보이게 그리고 밝게 홀을 꾸미자.

#### 5. 촬영 주문받기 전에 차 대접하자.

보통 손님이 홀에 들어서면 주인이나 종업원의 첫마디는, “어떻게 오셨습니까?”다.

어떻게 오긴 사진 찍으려고 온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그 정도니, 그 후의 서비스는 뻔할 “뻔” 자다.

왜,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리 앉으시죠” 하고 쇼파의 자리를 권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서둔다. 들어온 손님을 카운터 앞에 세워 놓고, 무슨 사진을 찍겠느냐? 고부터 따진다.

그러니 손님이 정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차분히 인사하고 쇼파에 앉게 한 후, 담배라도 한 대 권하던지, 차라도 한잔 권해 보라.

마치 옛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듯 말이다. 손님은 이 의외의 인간적인 접대에 조금은 당황해할 것이다.

그러나 기분 나빠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권하는 담배를 받아 피우던지, 대접해 주는 차를 일단은 들게 된다. 그리고 이런 시간은 불과 2~3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아주 친한 친구와 만난 것같이 말이다.

그런, 후에 용건을 물어도 늦지 않는다. 물론, 상대 손님이 바빠하면, 그런 시간을 1~2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난 후 용건을 물어라.

“어떤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여권 사진이 필요해서….

“아~ 네 ~ 해외여행을 가시는군요!”

그리고는 기사에게 촬영 준비를 지시한다.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미국이요… “무슨 회의가 있으신 모양이죠?”

이쯤 되면 손님은 기분이 좋아진다.

구경을 가건, 장사하러 가건, 그래도 사진관 주인이 무슨 “회의” 운운해 주는 것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높이 보아주는 것이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촌스럽게 사진값이 얼마냐고 따져 묻게 되지 않는다.

물론 주인도 사진값이 얼마라고 앞질러 얘기할 필요가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최고의 예술작품을 창조해 내는 예술가가, 사진값 운운한다. 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가 촬영 준비를 할 동안, 계속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 미국 어느 쪽에 가시나요?”

“L.A에 갑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3년 전 L.A 올림픽 때, 촬영 때문에 L.A에 간 적이 있었죠!” 그곳엔 교포가 참 많더군요, 「코리아타운」에서는 영어를 쓰기가 도리어 쑥스러울 정도였어요!”

물론, 거짓말이다. 그러나 누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商術의 애교다. 이 정도의 거짓말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

그리고 “촬영 때문에 L.A에 갔었다”라는 사실로, 손님은 사진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코리아타운」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아도”라는 말로, 상당한 지식층이라는 인식을 주어, 사진은 좋은 사진일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된다.

그래서 사진관을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미국의 어느 주에는 무엇이 유명하고, 바로 그 옆의 주는 무슨 주라는 정도의 상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筆者는 자유당 시절에 군대 생활을 했다. 지금 같이 민주주의 군대 생활이 아니었다.

특히, 훈련병 생활은 지옥과 같은 시절이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두들겨 맞고, 기합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해서 잠이 오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때, 각 학과장에 他道 출신의 훈련병을 공연히 못살게 구는 유별난 조교들도 많았다.

그래서, 筆者는 꼭 학과장에 가기 전에 먼저 그 유별난 조교의 고향부터 파악해 놓는다.

그리고 학과장에 도착하면, 내무반장으로서 먼저 신고를 하면서, 아는 체를 한다.

“조교님 「청주」가 고향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조교는 그래, “너도 청주냐”고 묻는다.

“네, 그렇습니다. 우체국 옆이 집입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상대는 “우체국이러니? 어느 우체국”하고 묻는다.

물론 筆者는 「청주」에 가본 일도 없으니,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우체국이 「청주」에 몇 개나 있는지 알 리가 없다. 그러나, 보통 우체국은 기차역 부근이나, 시청과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네! 청주역에 있는 우체국입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상대는 십중팔구 “우체국 옆 어디가, 집인가?”고 묻는다. 그러면 무조건 시장 가는 쪽이라고 대답한

다. 어디나 시장 쪽이 있으니까. 이쯤 되면 상대방이 먼저 그쪽 길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농협 옆이란 말이야?

“아닙니다. 그 건너편으로 들어갑니다.”

“아, ○○병원 쪽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어느 집인데”

“조금, 내려가서 이발소 있는 데로 돌아갑니다”

(이발소도 거의 있게 마련이다) 이쯤 되면, 그 동네에 살지 않았던 상대라면, 오히려 상대가 筆者보다 더「청주」지리를 모르는 것이 된다.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나, 그 외의 일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한다. 너무 꼬리가 길면 잡히기 십상이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것이다.

“오늘 훈련 좀 잘 보아주십시오. 조교님하고 한 고향인데 체면 좀.” 이렇게 되면 그 악명 높은 학과장은 나이롱 학과장이 된다. 이런 거짓말은 누구를 해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교로 고생하는 한 사람에게 고향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이 되고, 우리 내무반원들은, 불필요한 기합을 받지 않아도 된 것이다. 즉, 상대방을 「기분 좋게」 「편안하게」 「안심시키는」 애교의 거짓말은, 한약의 감초 같이, 때로 비즈니스에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계속>

**편집자 주(註)**

지난 호에 이어 “寫眞館영업 成功하려면 이래야 한다.” 두 번째 시간이다.

지금과 달리 담배를 피우는 이야기와 LA 올림픽이 나오는 80년대의 이야기이지만, 지금과 대비를 해보아도 이질감이 없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고객 응대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제63회 국제 프로사진 세미나 일정안내

8월28일부터 30일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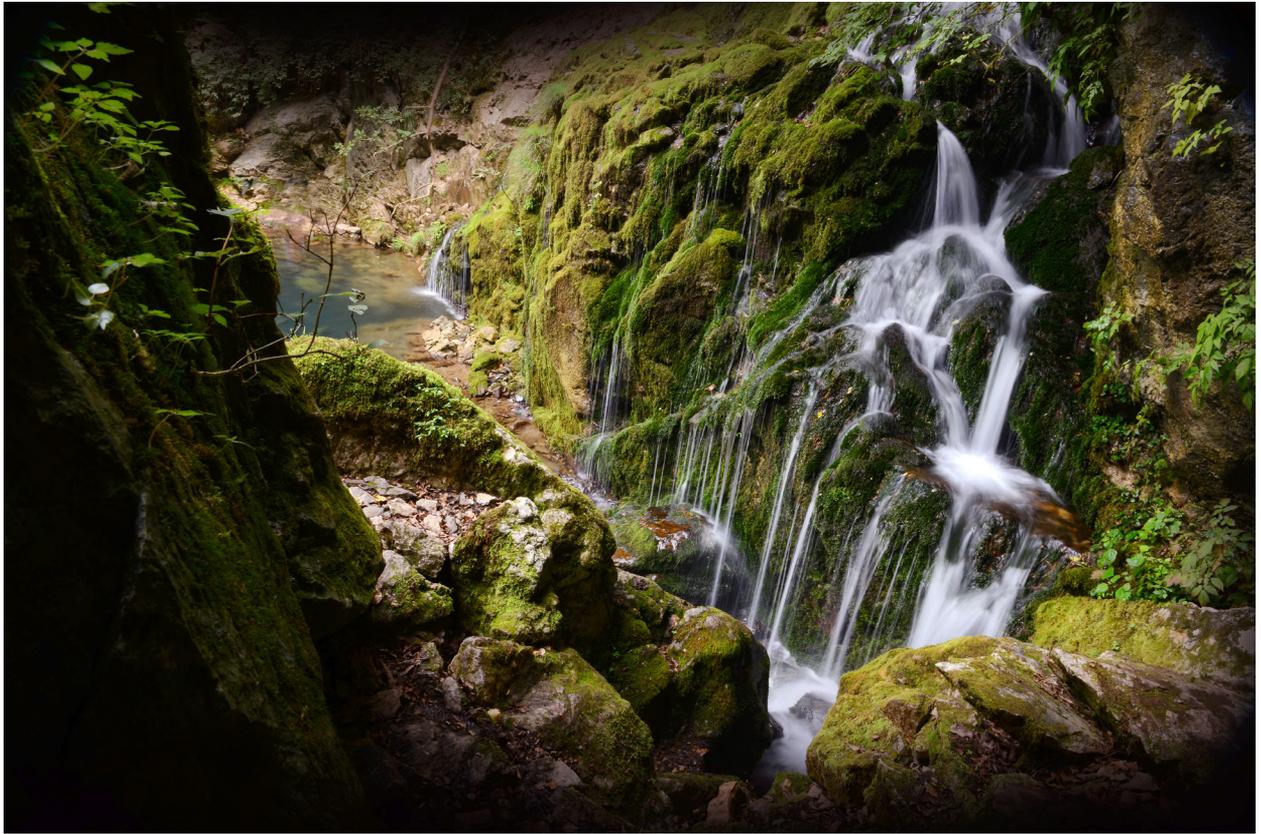
1. 등록마감 : 2022년 7월20일
2. 접 수 : 각 지회 사전등록
3. 등 록 비 : 180,000원

시간/요일	8월28일(일)	8월29일(월)			8월30일(화)		
08:00 ~ 09:00	국제 프로사진포럼의 목적 1. 회원의 역량강화 2. 여수의 아름다운 풍광 촬영 3. 사진展(상시)	조 식			조 식	투표(7시~9시)	
09:00 ~ 10:00		대의원 임시총회			강의A (1.5H)	강의B (1.5H)	강의C (1.5H)
10:00 ~ 11:00		강의A (2H)	강의B (2H)	강의C (2H)			
11:00 ~ 12:00	접 수	중 식			폐강식(선거결과발표)		
12:00 ~ 13:00		중 식			중 식		
13:00 ~ 14:00		강의A (2H)	강의B (2H)	강의C (2H)	<b>참가안내</b> 1. 참가비: 180,000원 2. 유치원생 동반 무료 (사전등록 한함) 3. 초등학생: 90,000원 (사전등록 한함) 4. 고등학생: 성인과 동일 5. 부부객실 (사전등록 한함)		
14:00 ~ 15:00	교육세미나 (2H)						
15:00 ~ 16:00	제63회 세미나 개강식						
16:00 ~ 17:00	촬영대회 및 여수밤바다 크루즈투어						
17:00 ~ 18:00	15시 촬영대회						
18:00 ~ 19:00	만 찬	18시 석식					
19:00 ~ 20:00	지회별 행사	19시 여수밤바다 크루즈투어					
20:00 ~ 21:00		22시 숙소도착					
비고	상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희



- 제 목 : 이끼 폭포
- 촬영정보 : NIKON D800, ISO 100, 1/2초
- 촬영장소 : 강원도
  
- 작가소개 : 송일규 작가
  - 궁전 사진관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감사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부지부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운영위원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촬영대회 입상. 입선 다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회원전 다수



- **제 목** : 춤사위
- **촬영정보** : Canon EOS-1D X Mark II, ISO 1000, 1/400
- **촬영장소** : 스튜디오
- **작가노트** : 스튜디오에서 동적인 사진을 촬영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광진지부에서 작가님들의 작품향상과 지속광을 이용한 촬영을 하여 담은 작품.

- **작가소개** : 이덕경
  - 삼육 스튜디오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촬영대회 입상. 입선 다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촬영대회 입상. 입선 다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단체 회원전 다수
  - 캐논촬영대회 입상. 입선 다수





부산지회



- 제 목 : 연주자
- 촬영정보 : 1/60, F8, ISO 100
- 촬영장소 : 스튜디오
- 작가노트 : 연주회 팸플릿용 프로필 촬영
  
- 작가소개 : 박용주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지회장



- 제 목 : 자체발광
- 촬영정보 : 1/200, F5.6, ISO 200
- 촬영장소 : 에버랜드
- 작가노트 : 역광으로 들어오는 찬란한 빛이 코스모스를 통과하며 눈 부신 장관은 연출함.



대구지희



- **제 목** : 꿈 의 시선 22
- **촬영정보** : 35mm, 1/125, F/5.6, ISO/100
- **촬영장소** : 너를봄 사진관
- **작가노트** : '꿈의 시선' 시리즈는 직부감이 주는 낯성으로 몽환적 느낌을 만드는 현재 진행 중인 연작이다. 물로 가득한 세상 속을 헤엄치던 꿈속에서 느꼈던 장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모델이 바닥에 눕고, 카메라가 천정으로 가는 순간 중력의 방향이 달라진다. 머리칼도 옷자락도 중력을 벗어난 현실을 만들어 낸다.
- **작가소개** : 이정훈
  - 너를 봄 사진관 대표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 북구지부 교육강사
  - 2021년 하반기 지상공모전 금상수상



- **제 목** : 아름다운 모델
- **촬영정보** : 캐논 R5 시그마 아트 135mm 1/125, F5.6, 125
- **촬영장소** : 너를봄 사진관
- **작가노트** : '만 레이'의 작품은 이해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촌철살인(寸鐵殺人)과 같은 제목이 있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촬영한 사진은 촬영 이후에 제목을 만들어 내고, 한계를 가지게 된다. 제목으로 인해 이 사진은 아름다운 모델을 찍은 그 이상을 넘지 못할 것이다.

대전지희



PHOTO BY DAEJEON LOVE STORY  
가족을 이야기하다



- 제 목 : 가족사진
- 작가소개 : 이영진
  - 사랑이야기스튜디오 대전점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이사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프로인상사진 추천작가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전지희 사무국장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전지희 지회장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이사



▪ 제 목 : 가족사진2



울산지회



- **제 목** : 거문고 타는 선비
- **촬영정보** : Canon 5D-mark3, 렌즈: 캐논28-300m, 3.5~5.6, F/4, 250/1
- **작가노트** : 울산지경 해변 앞에서 새벽녘 거문고 타는 선비의 모습을 담았다
  
- **작가소개** : 김원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 감사
  - 2018~2021 한국프로사진협회 포트레이트 사진전 3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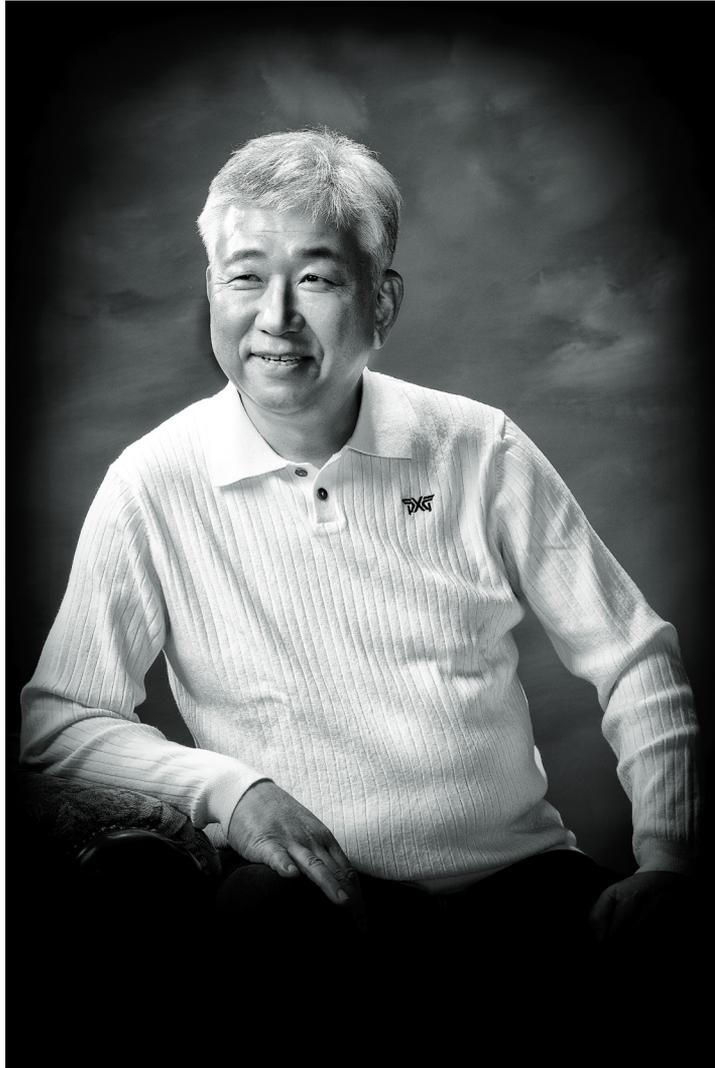


- **제 목** : 천상에서의 발레
- **촬영정보** : Canon 5Dmark3, 캐논50m, 1.4, F/2.8, 500/1
- **작가노트** : 바람이 불어오는 천상에서 발레하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만들어 보았다.
  
- **작가소개** : 이흥식
  - 알라딘 스튜디오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 부지회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 동구지부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프로인상사진 추천작가





경기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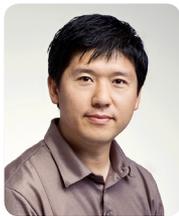
- **제 목** : 백발의 미소
- **작가노트** : 흰 백발과 흰 셔츠와 흰 구름 같은 미소와 부처님 귀 닮은 큰 귀가 압권이다.
  
- **작가소개** : 김영훈
  - 윤슬사진촬영연구소 원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구리, 남양주지부장
  - 가평예술대학 사진과 교수
  - 대한민국남북통일예술협회 [사진명인선정 (명인 2016-2호)]
  - 한얼문예박물관 [사진명장선정 (명장 (한얼 제2020-명장10호)]
  - 제6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해양수산부 장관상
  - 제10회 대한민국 남북통일 세계환경예술대전 대상(경기도지사장상)
  - KBS춘천방송총국 개인전



- 제 목 : 프레임
- 작가노트 : 누군가 인생은 한 컷 한 컷의 프레임을 찍는 거라고 했던가..  
한 순간, 단 한 컷의 프레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충북지회



- **제 목** : 50일 기념사진
- **촬영정보** : 니콘D850 50mm, 1/125, F3.5, 감도640
- **촬영장소** : 스튜디오
- **작가노트** : 50일 사진으로 첫 나들이 사진입니다.  
건강하고 듬직하게 잘 자라길 빌어봅니다.
  
- **작가소개** : 연원석
  - 크림스튜디오대표
  - 현 (사)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충북지회장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북지회 사무국장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북지회 청주시지부장



▪ 제 목 : 50일 기념사진2



충남지희



- 제 목 : 마곡사의 봄
- 작가소개 : 이승주
  - Gaya Photo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제 목** : Joy of pregnancy(임태의 기쁨)
- **촬영정보** : 캐논24-70, 160/1, F/8, ISO/160
- **작가노트** : PPA General Collection 선정된작품.  
남다른 만삭사진으로 찍어 드리고 싶었던 작품 입니다.
  
- **작가소개** : 박응태
  - 예산 중앙스튜디오 대표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 PPA MASTER PHOTOGRAPHER





경북지회



- 제 목 : 해오름
- 작가소개 : 김해용
  - 행복스튜디오(칠곡소재)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북지회 자문



▪ 제 목 : 희망의 태양



기획연재 [울산광역시지회]

## 다둥이가정의 행복한 가족사진전

열두번째 기획연재로 권혁만 부회장(중앙협회)의 모델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최인정 가족을 소개합니다.



- ▼ 벚꽃나무가 있는 모델사진관에서 실제보다 더 현실감 있는 벚꽃이 날리는 나무 그늘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다.





▲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과 푸르른 잔디로 변신한 모델사진관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로 되돌아 가보았다. 우리 함께 힘껏 벚꽃을 날려볼까요?? ㅎㅎ



〈취재 : 김태만 울산지회 사무국장〉



기획연재 [광주광역시지회]

## 광주지회 기획사진전 “삶의 자리, 광주에 살다”



- 제 목 : 사색
- 촬영정보 : CANON EOS5D MARK IV, 50mm LENZ, 1/200, A3.2, ISO 200
- 작가노트 : 정상섭 화가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먼저그린다. 세상을 바라보는 화가의 사색을 표현하였다. 일종의 종교의식과 같은 경건함이 느껴진다.



작가소개: 문달순

- 포토아일랜드 대표
- 광주전남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장
- 前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 前 카톨릭사진회 정회원
- 광주대학교 사진학과 졸업(사진전공)



- 제 목 : 집중
- 촬영정보 : CANON EOS5D MARKIV, 50mm LENZ, 1/200, A1.2, ISO 100
- 작가노트 : 김진봉 강소기업 CEO의 일에 대한 열정과 힘을 쏟아붓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오랜세월이 느껴지는 김진봉 CEO의 집중에서 장인정신과 예술혼이 느껴진다.



- **제 목** : 아름다운 선셋
- **촬영정보** : 매빅3, 1/100, F 9.0, ISO:100
- **촬영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2022.05.28. 오후19시)
- **작가노트** : 영일만의 아름다운 노을과 그곳에서 누리는 자유

- **작가소개** : 권혁만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광역시 제10대 지회장
  - 2021년 제1회 노란우산 삶의현장 사진공모전 대상수상
  - 2021년 울산 한마음 미술대전 사진부문 금상수상
  - 2020년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대상



- **제 목** : 고향으로가자
- **촬영정보** : Canon 5DMarkIV, ISO200, 셔터속도 1/200, 조리개11
- **촬영장소** : 울릉도
- **작가노트** : 해양재단에서 주관한 독도 탐방 행사에서 촬영했다. 바닷가 한편에 만들어진 건조장에서 나무 꼬챙이에 끼인 채로 모두가 바닷가 쪽을 향한 모습이 마치 저들이 살던 바다로 돌아가고 싶은 모습 같아서 촬영했다.
  
- **작가소개** : 김동민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
  - 현 코레일 철도사진갤러리 대표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법제이사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 **제 목** : 까막딱다구리의 사랑    ▪ **촬영정보** : NIKON D4, f/8, 1/400초, ISO 1000
- **촬영장소** : 강원도 원주
- **작가노트** : 까막딱다구리는 몸이 까맣고 머리에 붉은 벼슬모양의 깃털이 있으며 까마귀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날개길이 24cm 정도이며 수컷은 머리 위와 목 뒤가 붉은색이며 암컷은 목 뒤만 붉다. 삼림지대에 서식하며 둥지는 땅에서 4~25m 높이의 나무 줄기에 암수가 함께 구멍을 파서 만들어 지금은 숲이 파괴되어 감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 242호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강원도 원주 지리산줄기에서 담은 까막딱다구리 가족이다.

▪ **작가소개** : 김선식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법제이사    -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공모전 심사위원장
- 문화관광부 예술기록화 사업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속의아름다운강 기록사업부팀장
- 국토해양부 길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행안부 명품길 공모전 심사위원
- 보건복지부주최 노인인식개선 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낙동강 유역 환경청 물길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산림환경 드론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해양수산부 등대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서울시서남권 글로벌센터 외국인 근로자 사진반 강의 1~4기수료    - 군용헬기 추락사진 촬영(울림픽대교 조형물설치중 추락)
- 예술인 활동증명    - 한국사진문화상 수상



- 제 목 : 강골 연못
- 촬영정보 : Canon R5, 15mm, ISO-50, F11, 1/10초
- 촬영장소 : 보성 강골마을
- 작가노트 : MBC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 「옷소매 붉은 끝동」 등 사극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골마을 앞에 있는 연못 풍경을 담다.

▪ 작가소개 : 김현호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촬영대회/공모전 입상 다수
- 전남문인협회, 보성예총 이사/보성문인협회 회원
- 이달의 디카시 작품상(2021년4월)
- 보성의 풍광」 개인전 2022년 2월
- 시집「차꽃 피면 만나리」





▪ **제 목** : 한강일몰

▪ **촬영정보** : 케논5dsr, 렌즈: 24-70, 1/10, F/1611, ISO/400

▪ **작가노트** : 웅비하는 서울의 한강일몰을 지인과 함께 담으러 갔다. 화려한 서울의 한강일몰은 장관이었다. 어느 도시의 일몰 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일몰이었다. 바라보는 시간동안 황홀함을 만끽 하는 시간이었으며, 작은도시들의 역사와 인문학적 느낌 사고들이 하나둘씩 채워가는 시간들이 우리 작가들의 소명이라 본다.

▪ **작가소개** : 이동재

- 현 빛담스튜디오 대표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현 경일신문 사회부차장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이사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위원장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감사



▪ 제 목 : 계절의여왕

▪ 작가노트 : 미지의 세계처럼

저 꽃잎들은  
아름답다.

황홀하다.

카메라의 렌즈로는 표현하기가 부족하다.

모처럼 접사의 세계에 빠져본다.

▪ 작가소개 : 이용일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이사, 국제분과위원장, 사진문화원 이사 역임
- 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남지회 지회장 역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1978년 세한칼라 촬영대회 입상 및 수상
- 2018~2019년 순천 사계 CBS 사진공모전 입상 및 수상





- **제 목** : 양귀비
- **촬영정보** : 니콘Z7, 500만사렌즈
- **촬영장소** : 수원 탑동시민농장
- **작가노트** : 나는 나를 잘 모른다, 너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
  
- **작가소개** : 이정희
  - 수원 화성스튜디오 대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수원시지부 명예지부장
  
- **그룹 전** : 2015 SOAF전, 2015 광주비엔날레NICAf전, 2015 상해 국제미술전  
2017 서울롯데아트페어, 2018 Hello Newyork展
- **단체 전** : 한·중·일 사진교류전 및 공동 기획전시 80여회 및 다수 단체전 출품
- **수상경력** : 대한민국사진전람회등 국내외 사진 컨테스트 90여회 입상 입선  
2011 수원시 젊은예술인 선정



- **제 목** : 물총새
- **촬영정보** : Canon EOS 7D Mark III, 1/2000, f/7/1, 500mm
- **촬영장소** : 원주
- **작가노트** : 물총새는 여름철새로 목표물을 향한 정확한 고공과 낙하가 특기이다. 물가에 살면서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며 개구리와 딱정벌레 등도 먹는다. 날아갈 때의 울음소리는 '찌이-잇뜨, 찌이-잇뜨'이다. 포란을 할 때는 물가·언덕·흙벼랑 등에 구멍을 파고, 3월 상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 한배에 4~7개의 흰 알을 낳는다. 알은 품은 지 19~21일 만에 부화되어 23~37일간 자란 후 동지를 떠나는데 원주 개천에서 담은 물총새이다.



- **작가소개** : 정세화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순수사진 공모전 은상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촬영대회 심사위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
  - 경기도들꽃사진공모전 은상(경기도지사 상 수상)
  - 니콘촬영대회 작품 심사위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총무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장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속에 아름다운강 공모전 동상
  - 토종닭 공모전 대상 수상
  - 제16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심사위원

## 제2차 이사회 및 지회장 연석회의 6월 7일(화) 오후 1시에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려

지난 6월 7일 오후 1시에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이사회 및 지회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정옥기 회장과 손무수석부회장이 참석을 하였고, 부회장단으로 송원호, 이봉하, 이성기, 권혁만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이영익, 한장훈, 성덕현, 정태영, 심준섭, 나영균, 박남규, 정대홍, 임병학, 채만수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사 참석자는 전성환, 홍석례, 김선식, 이영진, 서호경, 김만배, 하용백, 이만식, 전병길, 이동기이사가 참석하였으며, 문달순 광주지회장, 김하영 울산지회장, 연원석 충북지회장, 박호준 전북지회장, 노봉률 전남지회장, 이성우 경남지회장이 참석 하였다. 이해승 프로사진봉사 단장은 행사 기록촬영을 하였다.

회의는 이영익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으며, 총원 38명 중 2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정옥기 의장께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최 선언을 하였다. 의안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의안이 채택되었고 기타보고로는 회장 선출총회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제1호 의안 : 제63회 국제세미나 개최의 건
- 제2호 의안 : 공로상 수상자 선정의 건
- 제3호 의안 : 정관개정

○ 제1호 의안 : 제63회 국제세미나 개최의 건

- 의결 주문 : 2022년 제63회 국제세미나
- 제안 설명 : 기획이사 한장훈
- 회의 내용 : 1. 세미나 개최일시(8월 28일, 29일, 30일)  
2. 등록비: 180,000원(7월 20일 마감)
- ▶ 의결 주문과 같이 전원 동의로 가결함

○ 제2호 의안 : 공로상 수상자 선정의 건

- 의결 주문 : 제63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에 수여할 공로





01) 정옥기 회장님, 02) 사회를 보는 이영익 총무위원장 03) 한장훈 기획위원장 제안설명  
 04) 송원호 부회장 의견개진 05) 권혁만 부회장 06) 채만수 사진진흥특별위원장  
 07) 김선식 법제이사 위촉장 08) 이동기 4차산업발전추진이사 09) 서호경 작가제도이사  
 10) 김하영 울산지회장 11) 연원석 충북지회장 12) 현장답사

상 후보 선정을 의결함.

**제안 설명 :** 이영익 총무위원장

**회의 내용 :** 후보자를 추천받아 상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진행.

▶ 의결 주문과 같이 전원 동의로 가결함

○ 제3호 의안 : 정관개정 의 건

**의결 주문 :** 임원의 임기와 정족수에 대한 건. (별첨참조)

**제안 설명 :** 이영익 총무위원장

**회의 내용 :** 8월 29일(월) 임시총회 개최

▶ 의결 주문과 같이 전원 동의로 가결함

○ 기타토의 : 회장선출 총회 : 2022년도 8월 30일(화)

송원호 부회장은 기타의견으로 총회에서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1명이 반대해서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선거는 대의원 간접선거가 좋다고 생각한다. 총회와 선거 때문에 세미나 축제의 장이 훼손되면 안 된다. 세미나에

선거와 총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었다. 권혁만 부회장과 연원석 충북지회장은 온라인 투표가 회원 참석률이 높다는 의견을 주었다. 채만수 위원장은 선거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자라는 의견을 주었다. 김하영 울산지회장은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다면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지 체크를 요청하였고, 첫째 날 사전투표를 하고 본 투표는 행사 마지막 날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서호경 작가제도 이사는 현재 전북지회, 광주지회, 전남지회, 제주지회에서 부회장이 1명 선출이 되고 있는데 지역을 두 군데로 분리를 하여 부회장 선출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15시에 폐회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께서 폐회를 선언하였고, 김선식 법제이사의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회의를 끝내고 세미나 준비를 위하여 디오션호텔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취재 : 한장훈 기획위원장〉

〈사진 : 이해승 프로사진봉사단장〉

# P&I 2022 + SEOUL PHOTO + KOREA ART FAIR



## P&I 2022 제31회 서울국제사진영상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6월15일부터 18일 까지 열려

지난 6월 15일 정옥기 회장, 손무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이영익 총무이사, 한장훈 기획위원장, 정태영 교육위원장, 박남규 대외협력위원장, 임병학 4차산업발전추진위원장, 나영균 홍보위원장, 김선식 법제이사, 이한우 대외협력위원, 이해승 프로사진봉사단장이 참관을 하였다.





지난 6월 15일 정욱기 회장, 손무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이영익 총무이사, 한장훈 기획위원장, 정태영 교육위원장, 박남규 대외협력위원장, 임병학 4차산업발전추진위원장, 나영균 홍보위원장, 김선식 법제이사, 이한우 대외협력위원, 이해승 프로사진봉사단장이 참관을 하였다.

오전 10시에 개막식 커팅식이 있었고, 정욱기 회장은 전날인 14일에 호남권 세미나 참석으로 인하여 손무수 수석부회장이 대신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을 하였다.

테이프 커팅식에는 본 협회 손무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예술인협회 금보성 회장, 대한사진예술가협회 김평기 회장, 한국영상산업연합회 조창수 회장, 한국무

역센터 코엑스 이사장, 코엑스홍보대사 디자이너 이상봉,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 한국사진학회 박주석 회장, 한국광고사진학회 최창익 회장이 참여하였다.

10시 20분에 도착한 정욱기 회장은 한국영상산업연합회 조창수 회장과 한국사진학회 박주석 회장과 환담하였다.

정욱기 회장은 박남규 대외협력위원장과 서울국제사진영상전에 참가한 기재 업체 대표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8월 28일에 열리는 국제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취재: 한장훈 기획위원장〉  
 〈사진: 이해승 프로사진봉사단장〉

#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 6월 13일(월) 오후1시 사진회관 회의실에서 열려

본 협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본 협회 회의실에서 6월 13일에 열렸다. 김정수 고문, 김원희(前 37대 총무이사), 권용욱(前 37대 총무위원장), 김선식 법제이사, 김찬홍 자문, 류태열 자문, 박복근 자문, 박수열 자문, 윤택중 자문, 이동재 자문, 장광동 자문 등 11명이 참석을 하였다.

김원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국민의례와 김정수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을 하였다. 김정수 위원장은 여기 계신 모두 역량을 갖춘 분들이 모였다고 하였다. 이어서 참가자의 소개와 인사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회의는 선거관리 규정을 점검하고 일정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일정은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와 사단지에 선거공고를 하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김정수 선거관리위원장



사회를 진행하는 김원희사무국장

8월 30일 선거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인 7월 31일(일요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지만 휴일로 인하여 8월 1일(오후 5시)은 후보 등록 마감일로 지정하였다. 8월 20일은 투표통지표 발송교부 마감을 하고, 8월 1일 오후 3시에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취재 : **한장훈** 기획위원장〉

〈사진 : **이해승** 프로사진봉사단장〉



#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

## 정옥기 회장 생존권을 위해 참여

- 행사명 :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
- 일 시 : 6. 08(수) 14:00 ~ 16:00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공터(국민은행 서관앞)



소상공인 집회 - 정옥기 회장 최저임금제도개선

정옥기 회장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정부의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게 될 어려움에 외면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촉구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 취재 : 한장훈 기획위원장 >

# 소상공인 업종연계 공동특화 지원 사업 신청서

지난 5월 25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업종연계 공동특화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공동특화사업은 2개의 단체가 협력하여 단체당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본 협회는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신용길 이사장)와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31일(화) 오후 3시에 본 협회에서 회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 협회 한장훈 기획위원장, 김정대 법제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는 류근미 부이사장, 홍춘희 부이사장, 윤미나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회의내용은 사진관과 전국의 소상공인 꽃집의 경영자

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진행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6월 17일(금)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종적인 사업발표를 하였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취재 : 한장훈 기획위원장 >



경남지회

# 제60차 정기총회 및 제42회 경상남도지회 하계연수대회 盛了

## 6월 1일(수) 거제도의 푸른바다에 위치한 학동 해송횃집에서 열려

경남지회는 이성우 경남지부장, 이수영 부지회장, 박철원 부지회장, 한명룡 감사, 차충헌 사무국장과 경남지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동 해송횃집에서 하계연수대회를 개최 하였다.

권혁만 권역별 부회장, 박남규 대외협력위원장, 김하영 울산지회장, 김태만 울산지회사무국장, 윤용성 중앙원로자문, 이수영 중앙자문, 김찬홍 중앙자문, 천병태 부울경 앨범조합이사장, 김이연 경남지회고문, 형성환 경남지회 고문이 참석하였다.

차충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연수대회 개강식을 시작하였는데, 내외빈소개는 전병길 명예지회장(복지이사)가 하였으며, 이성우 경남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이어졌다.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이수영 부지회장의 회원윤리강령 낭독을 하였다.

권혁만 釜蔚慶 권역 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성우 지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격려사는 정옥기 회장의 6·1선거 출마로 인하여 김찬홍 중앙자문이 대독하였고 축사는 천병태 울산 경남 사진인쇄앨범조합장이 하였다.





이성우 경남지회장과 권혁만 부회장



격려금 전달



이성우 지회장과  
천병태 울산경남사진인쇄앨범조합이사장



회원윤리강령 낭독하는 이수영 부지회장



전병길 명예지회장 내외빈 소개



정옥기 회장 격려사 대독 김찬홍 중앙자문

2022년 3월에 오픈한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에 탑승하였는데, 거제의 자연, 산과 노을, 숲과 바다 경계 없는 자연 속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천혜의 절경을 즐겼다.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정상을 연결하는 1.56km 구간의 케이블카이며, 상부 전망대에서는 노자산과 다도해 전경을 경계 없이 360도로 접하실 수 있다. 총 45대의 캐빈 중 10대의 크리스탈 캐빈은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어, 노자산 숲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파노라마 케이블카 탑승 후 경남지회 회원들은 오랜만에 만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우정을 나누고 15시에 폐강을 하였다.

〈원고정리 : 한장훈 기획위원장〉



대한민국프로사진협회 경상남도지회  
**환 제60차 정기총회 및 제42회 하계연수대회 영**  
 일시 : 2022년 6월 1일(수) 12:00 | 장소 : 학동해송횃집 | 주관 :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경상남도지회

# 제42회 부산지회 촬영대회 盛了

## 6월 6일 을숙도 철새공원에서 열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지회는 지난 6월 6일 을숙도철새공원에서 촬영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개회식, 모델 촬영대회, 중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이 성황리에 끝났다.



격려사를 하는 정옥기 회장



환영사를 하는 권혁만부회장



대회사를 하는 박용주 부산지회장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된 개회식에서 허리웃포토 박종국, 명동스튜디오 손희영 회원이 협회장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지난 41회 촬영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행복만들기 정종숙 회원, 은상을 수상한 성심사진관 김영식, 다이에나스튜디오 전대성 회원, 동상을 수상한 예쁘나 의사진실 이광호, 길화사진관 한금찬, 반여사진관 안종학회원이 수상했다.

이어서 부산, 울산, 경남권역 권혁만 부회장의 환영사와

부산지회장 박용주의 대회사가 있었다.

정옥기 중앙회장님의 격려사, 부산광역시 고문, 자문회 신영상 회장의 격려사와 부산앨범인쇄조합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회원과 내빈 60여 명이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개회식을 마무리했다.

10시 40분부터 진행된 촬영대회 식전행사에서 모델과 촬영지도 위원 김성곤, 전대성작가의 소개가 있는 후, 박용주 지회장은 “모두 촬영지도 위원의 지도에 따라

질서가 있는 촬영을 부탁하였고, 촬영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촬영대회에서는 전문모델 2명을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열띤 경쟁의 셔터를 눌렀다. 12시를 넘기자 모델 2명의 더블 촬영을 끝으로 부산광역시지회 촬영대회를 마치고, 장어요리 식당으로 이동 후 점심을 마치고 2시에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강영동 부산지회 주재기자〉



내빈소개



촬영대회



대구·경북지회



## 2022년 대구·경북 합동 하계 세미나 盛了 6월 6일 팔공산 대한수목원에서 열려

신록의 계절 만물이 한층 질푸르게 물들일 때쯤 대구 경북의 어느 때 보다 단합된 한마음으로 대구·경북 하계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회가 주관하였는데, 안규석 지회장과 박분희 사무국장의 용의주도하며 동분서주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행이 되었다. 안규석 지회장과 사모님과 최완식 지회장의 사모님은 대한수목원의 장소를 여러 차례 점검하고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였다.

### 행사 일정

<p>09:00~10:00 대구 강재동, 경북 최일하 회원 실전 포토샵 강의</p> <p>10:00~11:30 모델 촬영(여성 헬스 트레이너 대구 3명, 경기도 3명)</p> <p>11:30~12:30 개강식</p> <p>12:30~13:30 중식</p> <p>13:30~14:00 보물찾기, 레크레이션</p> <p>14:00~14:30 대구·경북 족구대회</p> <p>14:30~ 경품추첨, 시상식, 폐강식</p>	<p>행사 개막 시작은 대구 강재동, 경북 최일하 회원 두 분이 열성적으로 실전 포토샵 강의를 있었다.</p> <p>대구·경북 임원들의 헌신적 수고로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준비하였고 회원과 손님을 맞이하였다.</p> <p>강의를 마치고 모델 촬영대회가 시작되었는데, 6명이 바뀌가며 3곳으로 분류 촬영대회를 하였다.</p> <p>모델들은 보디빌더들이라 그런지 몸들이 좋고 끼가 많아 모델로도 어색함이 없었다.</p>
--	--

개강식은 안규석 대구지회장이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본 협회 조계제 중앙감사가 내빈인사 및 대구지회 임원 소개하고, 최완식 경북지회장의 인사와 정태영 교육 자격위원장이 내빈과 경북지회 임원을 소개하고, 이어 정욱기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하계 세미나는 야외 세미나 장소에서 열려 아름다운 경치 멋진 풍경이 더해졌고 전날부터 비가 내렸으나 거짓말처럼 행사 중 오전은 비가 멈추었다. 행사는 최적의 환경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보물찾기와 대경 화합의 족구대회를 하였는데 경북지회

가 우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품추첨은 두 분의 지회장 의도대로 회원 전원이 상품 하나씩 가져가는 행운을 주었다.

행사를 마치자 거짓말처럼 비가 내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행사를 잘 마치게 되어 참 고마운 일이고 행복한 하루였다. 안규석 지회장과 사모님과 최완식 지회장의 사모님,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무탈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글 : 김경환 부지회장님〉

〈사진 : 조대화 주재기자〉



대구지회 안규석 지회장님



경북지회 최완식 지회장님



포토샵강의 - 대구지회 강재동 작가님



포토샵강의 - 경북지회 최일하 작가님



정욱기 회장과 김영두 부회장



정욱기 회장 지회격려금 전달



정욱기회장 표창



촬영대회



족구대회 시상금전달

강원지회

# 제28회 강원지회 연수대회盛了

6월 10일(금),11일(토) 강원도 영월 한반도 카르페디엠펜션에서 열려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색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와 유사한 곳인 선암마을의 카르페디엠 펜션에서 강원지회 연수대회가 열렸다.

개강식 전에 한장훈 기획위원장의 사단지에 대한 역사에 대해 강의를 하고 김경식 강원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강식이 열렸다. 최경모 명예지회장이 내빈소개를 하였고 김승배 강원지회장이 개회선언을 하였다.

개회선언 후 간단한 국민의례를 하고 원주 김윤현 회원이 회원윤리강령 낭독을 하였고, 중앙회장 표창은 한장훈 기획위원장이 김윤현(파스텔아이) 회원에게 전달하였다. 김승배 강원지회장은 최경모 명예지회장에게 공로장을 전달하고, 권오걸 대표(서라벌스튜디오)에게 지회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어 김승배 지회장은 “제27회, 강원지회 하계연수대회 촬영대회” 입상자 대한 시상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 금상** 고향사진관 박종두\_무제
- 은상** 하나스튜디오 최영기\_김삿갓2
- 동상** 귀빈스튜디오 고철균\_반영
- 가작** 포토채널 김인수\_대금
- 동해칼라스튜디오 박준영\_무제
- 입선** 귀빈스튜디오 고철균\_연주
- 비발디스튜디오 김윤현\_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 고향사진관 박종두\_무제



최경모 명예지회장 내빈소개



김승배 강원지회장(대회장)의 개회선언



원주 김윤현 회원의 회원윤리강령 낭독



중앙회장표창을 한장훈 기획위원장이 대신 전달



김승배 지회장이 최경모 명예지회장에게 공로장을 전달



지회장 표창장 서라벌스튜디오 권오걸 대표



제27회, 강원지회 하계연수대회  
촬영대회 입상자



모범지회 표창 이흥재 지부장



정옥기 회장 격려사 대독하는  
한장훈 기획위원장



강원도 앨범조합 김광수 이사장의 축사



저녁만찬

모범지회 표창으로 이흥재 지부장에게 표창을 하였으며, 정옥기 회장을 대신하여 한장훈 기획위원장이 격려사를 대독하고 지회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김광수 강원도 앨범조합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는데 6.1 지방선거에서 김 이사장의 배우자가 황성군 의원님으로 당선된 것을 강원지회 모든 회원들이 축하해 주었다.

원주지부장과 김윤현 회원이 삼겹살을 구워 풍성한 만찬을 준비하여 회원들이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식후에는 노래방에서 회원들의 여흥으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취재 : 한장훈 기획위원장, 사진 : 전제인〉



울산지회

# 제24회 울산광역시지회 연수대회 개최

## 마케팅 사진강좌 · 모델촬영대회 · 요트탈래 체험

울산광역시지회(지회장 김하영)는 지난 6월 12일(일) 제24회 연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대회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손무수 수석부회장과 협회임원, 회원 및 회원가족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케팅 사진강좌 · 모델촬영대회 · 요트탈래 체험 등의 행사를 가졌다.

먼저, 오전 9시 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사진 강좌에서는 상상이즈 대표 이형태 강사의 마케팅 강의가 있었다. 마케팅 강의에서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를 활용한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있었다. 사진강좌에 이어서 연수대회 개강식을 하였다. 김태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강식에서 박남규 명예대회장의 내빈소개 뒤에 권혁만 협회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 · 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하영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려 매년 개최해 왔던 연수대회마저 건너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푸르른 신록이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이곳 동구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한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이어 손무수 수석부회장은 “울산광역시지회는 전국 어떠한 지회보다 항상 앞장서고 추진력 강한 우수한 지회입니다. 저희 경기도지회랑 자매지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천병태 울산·경남 앨범조합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연수대회를 개최한 김



대회사를 하는 김하영 울산지회장



내빈소개하는 박남규 명예지회장



회원윤리강령낭독을 하는 김희덕 남구지부장



환영사를 하는 권혁만 부회장



격려사를 하는 손무수 수석부회장



축사를 하는 천병태 울산·경남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



자매지회 축사를 하는 최진선 경기지회장



마케팅 사진강좌 열기



울산지회 단체복을 기증하는 김교식 협회자문



울산지회발전기금을 전달하는 울산·경남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박선길 울산사무소장



비키니 모델 촬영대회의 열기



기념촬영



요트탈래 체험

하영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울산지회 회원 모두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자매지회인 최진선 경기도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타 지회의 귀감이 되는 울산지회와 형제의 정을 맺고 있어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며 선배들이 맺어준 좋은 자매지회 인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하였다.

개강식을 마친 회원들은 회답답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요트탈래 체험을 위해 일산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요트를 타고 울산 동구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어 연수대회의 백미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런데 체험 시간이 짧아 아쉬움이 있었다. 요트탈래 체험과 동시에 해변에서는 비키니

모델 사진촬영대회를 하였다. 김택수 초대작가의 뛰어난 촬영지도에 모델 또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포즈연출을 해주어, 그 어느 촬영대회보다 많은 회원이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하였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김교식 고문(협회자문)은 강평을 통해 오늘 연수대회는 내용이 알찬 행사였으며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회장과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행사를 마칠 때까지 함께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

〈글· 사진 울산주재기자 최석현〉



개강식을 마치고 단체기념촬영

제주·호남지회

# 제주지회, 호남권 사진 연수대회 盛了

2022년 6월 14일(화), 15일(수) 이틀간 제주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열려

회원 120명이 참석한 호남권연수대회는 제주지회가 주최하고, 전남지회, 광주지회, 전북지회가 주관하고, 제주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2022년 6월 14~15일에 열렸다.

정옥기 회장, 이성기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38대 임원으로 이영익 총무위원장, 한장훈 기획위원장, 채만수 사진발전진흥특별위원장, 심준섭 작가제도 위원장, 전성환 총무이사, 홍석례 기획이사, 남영우 대외협력이사, 서호경 작가제도 이사가 참석을 하였다.

중앙자문으로는 김정훈 자문, 김동일 자문, 박복근 자문, 박동철 자문님이 참석을 하였고,

각 지회 고문으로 전남지회 남유형 고문, 광주지회 김동근 고문, 김정현 고문, 제주지회 문진형 고문, 김귀홍 고문, 고창문 고문이 참석하였다.

개강식은 이창훈 제주지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을 하였다.

노봉률 전남지회장의 내외빈 소개, 박호준 전북지회장의 회원윤리강령낭독, 문두호 제주지회장(집행위원장)의 환영사, 이성기 부회장(대회장)의 대회사, 정옥기 회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중앙표창은 전남지회 박성준, 김종금, 광주지회 박해승, 제주지회 강기찬, 전북지회 박태준, 김수동 회원이 수상하였다.

연수대회의 첫 일정은 강의로 시작을 하였는데, 첫 시간은 조인환 교육위원이 “스냅 사진을 기본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여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중식 후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한장훈 기획위원장이 “2022년 사진시장 분석 및 마케팅”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마지막 시간인 세 번째 강의는 부소윤 원장의 “프롤인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격려사하는 정옥기 회장



대회사하는 이성기 부회장



내외빈 소개하는 노봉률 전남지회장



사회를 보는 이창훈 제주지회 부회장



개회선언하는 문달순 광주지회장



회원윤리강령을 낭독하는 박호준 전북지회장



환영사하는 문두호 지회장



조인환 강사 & 한장훈 강사



중앙표창수상자



해녀 모델



촬영대회 단체사진



새별오름 촬영대회 촬영대회단체사진

촬영대회는 제주 해녀와 조선 시대부터 유래된 소중의 전통 의상(소중한 곳을 가리는 옷)을 전국에 알리는 촬영대회 진행하였다. 촬영대회에 참석한 이성열 광주지회 사무국장은 제주 해녀 전통의상(소중의) 촬영은 처음이라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으며 소감을 밝혔다. 고령이지만 추운 날씨에 잠수복이 아닌 전통의상(소중의)을 입고 물질하는 연출에 제주 여성의 뛰어난 생활력을 연상할 수 있었다고 칭찬과 감탄을 연발하였다.

모델로 참석한 55세의 현안열 해녀(귀덕2리 어촌계 한수풀 해녀 노래보존회)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말문을 열었다. 10여 명의 작가분이 오실 거라 예상을 하였는데 버스 2대로 80여 명이 참가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의 참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작가와 해녀의 일심동체가 이루어지는 촬영 분위기가 되었으며 현안열 해녀는 모델이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제주 해녀와 전통의상인 “소중의”를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려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둘째 날 촬영대회는 제주 새별오름을 오르며 “먼동이 트는 아침, 찬란히 빛나는 새벽의 기운을 머금은 새별오름을 촬영

하였다. 새별오름은 매해 경칩절이면 탐라개국의 성지 삼성혈에서 채화한 불씨를 가져와 들불을 놓는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온갖 굶은 액을 다 태워 없애고 한 해 동안의 무사안녕과 소원이 하늘에 달기를 기원한다.

유래에 맞추어 본 협회 회원들은 굶은 액을 태우고자 등산을 하였고, 이어 카멜리아 힐을 관람하고 수국을 촬영을 전개하였다. 1박 2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4개 지회는 서로의 우정을 나누며 함께 식사하고 술 한 잔 마시며 호남권역 연수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서현호 전남주재기자, 최성재 전북주재기자, 윤병선 광주주재기자, 이수현 제주주재기자〉



충청지회

# 2022년 충청권 촬영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 6월 22일(수)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에서 열려

연원석 대회장은(충북지회장) 이승호 대전지회장, 임흥철 충남지회장과 함께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에서 충청권 촬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연원석 대회장은 전 세계를 일시에 마비시켰던 전대미문의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전 세계인이 다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쓴 결과 서서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조심스럽지만 마냥 움츠릴 수만 없어 작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변 산세와 풍광이 아름다운 대청호에서 회원 상호 간의 우의도 다지고 충청권 3개 지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옥기 회장과 육재원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이종인 원로자문 장광동 자문, 김영동 자문, 김상열 자문, 권

용욱 충남지회자문, 손무수 수석부회장, 이영익 총무위원장, 한장훈 기획위원장, 강문호 교육자격이사, 이영진 교육자격이사, 장대진 정부정책이사, 김동한 고문행정사, 이경희 서울지회장, 신건정 서울사무국장, 문기수 서울지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장광동 자문이 촬영 지도로 오전 10시에 촬영대회가 열렸고 12시에 개강식을 하였다.

이영진 교육자격이사의 사회로 시작한 개강식은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박상철 대전지회 고문이 시원한 생수를 전달하여 청량감을 선사하였다.



임흥철 충남지회장, 이봉하 부회장, 연원석 충북지회장, 이승호 대전지회장



개강식 사회 이영진 교육자격이사



회원윤리강령 낭독하는 이승호 대전지회장



협회장표창



지회장표창



이봉하 부회장이 로하스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



정욱기 회장 지회격려금 전달



촬영대회



웃놀이



투호



체육대회



촬영대회 단체사진

이봉하 부회장이 내외빈 소개를 하고 연원석 대회장이 개최 선언을 하였다. 국민의례는 여건상 생각을 하고 정욱기 회장 앞에서 이승호 대전지회장이 회원윤리강령을 낭독하였다.

이봉하 부회장은 김성선 로하스캠핑장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이어서 이봉하 부회장의 환영사와 연원석 대회장의 대회사가 있었다.

협회장 표창은 장대진 나비스튜디오, 김영석 에이블스튜디오, 김화중 자람스튜디오, 강희상 한빛포토스튜디오, 이두용 당진칼라, 이석민 아폴로스튜디오가 수상하였다. 지회장 표창은 충북 조구성(조구성스튜디오), 대전 신승환(코닥사진관), 충남 최영두(조양스튜디오)가 수상하였다.

격려사는 정욱기 회장이 하였으며 장광동 자문의 축사, 이기호 대전충남세종 앨범조합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개강식을 끝내고 회원들은 바비큐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경품추천, 제기차기, 웃놀이, 투호등을 즐기면 화합과 우정을 나누었다.

〈취재 : 한장훈 기획위원장〉

〈사진 : 문호영 청주시지부장〉





## 한라산 영실코스에 위치한

# 영실기암과 오백나한-명승(名勝) 제84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에 있는 경승(景勝) 가운데 하나인 영실(靈室)에 있는 기암괴석에 얽힌 전설이 있다.

한라산 백록담 서남쪽 해발 1,600여m의 위치에서 아래로 약 250여m의 수직 암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암벽을 구성하는 기암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곳이 영실기암이다. 영실기암은 한라산을 대표하는 경승지로서 영주 12경 중 제9경에 해당하며, 춘화, 녹음, 단풍, 설경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모습과 울창한 수림이 어울려 빼어난 경치를 보여주는 명승이다. 영실의 절경뿐만 아니라 영실에서 내려다보는 산방산 일대는 마치 신선이 되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풍광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영실 지역의 동북쪽에는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하늘을 받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기암괴석들이 하늘로 솟아 있는 모습이 석가여래가 설법하던 영산(靈山)과 흡사하다 하여 이곳을 영실(靈室)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곳의 1,200여 개 석주가 빙 둘러쳐져 있는 형상이 마치 병풍을 쳐 놓은 것 같다하여 병풍바위라 했다고 하고, 이 바위들이 설법을 경청하는 불제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오백나한이라고 불렀으며, 또한 억센 장군들과 같다 하여 오백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 기암괴석을 대개 오백장군(五百將軍) 또는 오백나한(五百羅漢)이라고 한다. 이 기암괴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옛날 어떤 어머니가 아들 오백 형제를 낳고 살았다. 식구는 많은데 흉년까지 들어 끼니를 잇기도 힘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썬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오백 형제는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한편 어머니는 큰 가마솥을 걸어 놓고 아들들이 돌아오면 먹일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을 짓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더 솔에 빠져 죽고 말았다. 양식을 얻으러 나갔던 오백 형제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죽이 있어 먹기 시작하였다. 막내가 죽을 먹으려고 솥을 저을 때 이상하게도 틀림없는 사람의 뼈다귀를 발견하였다. 순간 막내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가 솔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아차렸다. 막내는 어머니가 빠져 죽은 죽을 먹은 불효한 형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막내는 통탄하며 멀리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

귀섬까지 달려가 끝없이 울다가 바위가 되어 버렸다. 그때야 비로소 형들도 어머니가 솔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 늘어서 통탄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변한 바위가 오백장군이다. 막내는 차귀섬에 있으니 영실에는 모두 499명의 장군이 있는 셈이다. 차귀섬에 있는 막내 장군 바위는 인근 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바글지오름에서 훤히 보인다.

오백장군의 이야기는 영실기암에 얽힌 설화로서 가난한 삶 속에서도 오백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자 한 어머니의 모성과 희생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아들들은 마치 자신들이 어머니를 죽인 것 마냥 죄책감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바위가 되었다는 점에서 효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人倫)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설화적 상상력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죽은 어머니의 살점을 먹음으로써 어머니의 능력은 아들들에게 계승되고, 그 흔적이 영실기암으로 남아 현재까지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라산은 1966년 10월 12일 천연기념물 제182호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고,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6월 27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등재되었다.

〈글. 사진 : 제주지회 이수현 주재기자〉



# 서울지회 광진지부 제17회 촬영대회

## 6월12일 현대 무용수 모델을 초청하여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에서 열려



정세화 광진지부 총무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는 서울특별시지회 광진지부는 6월 12일 진건읍 사능리에서 제17회 광진지부 촬영대회 및 사랑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관계로 촬영대회를 간소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외빈 초청을 하지 않고 서울시지회장님 외 광진지부 작가님들과 현대 무용수 모델을 초청하여 촬영대회를 진행하였다.

제17회 광진지부 촬영대회 협회장 표창에는 한권일 자문, 서울시지회장 표창에 김진권 부지부장, 송일규 운영위원장, 광진지부장 표창에 김서연 회원, 이덕경 회원, 임지영 회원이 수상하였다.



협회장 표창장 전달에는 중앙협회 임병학 이사께서 대신하였고 지회장 표창에는 이경희 서울지회장님께서 전달하였다.

김중현 광진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하여 광진 가족과 함께한 3년간의 행복한 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주어진 지부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광진지부 발전을 위해 회원님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히셨다.

류기혁 광진지부고문은 환영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2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우리 지부 회원 중에서도 사진업을 정리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것을 보면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지부 회원들

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사진 시장을 함께 만들자고 하시며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하자고 힘주어 말씀해 주셨다.

이경희 서울지회 지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코로나 정국으로 어수선한 시기에도 현대무용수를 모시고 현대무용을 인상사진으로 접목하여 작품을 만드는 열정과 행사 준비를 해주신 임원들께 감사의 말과 함께 서울의 여러 지부에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부와 지회가 함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강조하셨다.

언제나 함께 소통하며 전진하는 광진지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18회 촬영대를 기다려 본다...

〈글 : 정세화 광진지부 총무〉





# 심준섭 작가제도 위원장 초대展

전시장소 : 달빛 갤러리

전시기간 : 2022.6.24.(금)~7.31(일)

관람시간 : 10:00~18:00 점심시간휴무, 월요일 휴관

주 소 : 전남 여수시 고소5길 32

전 화 : 061-661-0887



# 김정대 작가제도 위원장 순환의 이데아 전(展)

- 2022.06.04 ~ 06.27
- 오프닝 리셉션 6.4 pm: 5
- 참여 작가 : 김정대, 이진경, 양희아, Todd Holoubek



예술공간 아틀  
기획전

# 순환 의 이데아전

김정대  
/  
이진경  
/  
양희아  
/  
Todd Holoubek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4, 2층

2022. 6. 4 (토) - 6. 26 (일)  
오프닝 리셉션 : 6월 4일 PM 5시



## 김영훈 남양주.구리지부장

# (사)대한민국 남북통일 예술협회 국회의장상 受賞



“제14회 대한민국 남북통일 세계환경 예술대전”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모습



한승효 작가와 김도형 기획위원 명인패 수여를 받았다.

등의 종합심사 후 종합대상으로 국회의장상을 수상 한 것이다.

아울러, 한승효 작가(본 협회 정회원)와 김도형 작가(본 협회 작가가획위원)는 (사)대한민국 남북통일 예술협회로부터 사진 명인을 수여 받았다.

지난 5월 13일 김영훈 남양주.구리 지부장은 (사)대한민국 남북통일 예술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4회 대한민국 남북통일 세계환경예술대전”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이 확정되었다.

김영훈 지부장은 2022년6월2일부터 30일까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꽃, 두루미 사진 전시회” 전시회를 열었다.

〈취재 : 한장훈 기획위원장〉

6월 18일에는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국회의장을 대신하여 박진남 (사)대한민국 남북통일 예술협회 이사장이 상장을 수여하였다. “제14회 대한민국 남북통일 세계환경 예술대전”은 부분별로 국회의장상, 통일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국가보훈처장상, 경기도지사상, 동두천시장상, 경기도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있다. 공모 부분은 사진 및 서예, 한국화, 문인화, 서각, 서양화, 캘리크라피, 수채화, 건축, 조형 회화, 의상, 도예, 가죽공예, 섬유공예



꽃, 두루미 구리문화원 전시



전시회 전경

# 제39대 회장, 감사선거 공고

정관 제11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2022년 8월 30일 회장선출총회 시 실시할 제39대 임원선거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 : 2022년 8월 30일 오전7시~9시

2. 장소 : 여수 디오션(국제세미나 장소)

3. 선출할 임원 : 회장 1인, 감사 2인

## 4. 회장, 감사 입후보자 등록

가. 등록마감 일시 : 2022년 8월 1일(월) 17:00

나. 등록서류 접수 : 협회 사무처(선거관리위원회)

다. 등록서류 제출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소정의 서류를 사무처(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반드시 후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우편 또한 마감일까지 사무처에 도착하여야 한다.

라. 등록신청 양식 교부 : 협회 사무처에서 배부

## 마. 회장, 감사 입후보자 자격(선거관리규정 제5조)

① 회장 부회장 감사의 출마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년도 1월1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정회원으로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본회 임원을 2년 이상 역임 또는 임원임기 만료 예정자로서 지회장, 지부장 또는 협회 감사를 4년 이상 역임한 자

나. 본회 임원을 4년 이상 역임 또는 임원임기 4년 만료 예정자로서 지회장, 지부장 또는 협회 감사를 2년 이상 역임한 자

다. 본회 임원을 6년 이상 역임 또는 임원임기 6년 종료 예정자

2. 주무부장관의 임원 승인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부회장은 현행 권역에 소속된 지회별 윤번제로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하며 당시에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차례로 돌아오는 때에 해당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다.

## 바. 등록자 구비서류(선거관리규정 제6조)

(1) 후보신청서 1부(별지 양식)

(2) 가족관계증명원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감증명서 1통

(5) 사업자등록증 사본1매

(6) 자필이력서 1통

(7) 사진원본 파일

(8) 후보자를 회원에게 알릴 선거공보 원고(사진, 성명, 경력, 소견을 포함하여 A4용지 4면 이내) 1부

(9) 선거관리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서(별지양식)

(10) 지정된 계좌 입금확인서 및 현금 또는 금융권 자기앞수표

(11) 선거관리규정 제6조 ③항에 의거 회장 후보로 등록할 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등록비 2,00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선거관리위원회) 351-0883-1803-93 농협은행**

사. 상기 이외의 기타 사항은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준함.

2022. 6. 27.



**대한민국프로사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정 수

# 회원 경조사 안내

▼ 정욱기 회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 當選

▼ 김광수 자문 배우자 박승남님 강원 횡성 기초의원  
비례대표 當選 (소속지회: 강원지회 횡성지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 개표완료

개요 **당선인** 개표결과 후보자 투표율 사전투표 거소투표

구·시·군의 장 사·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

**정욱기** 기호 4  
전남 여수시 바선거구 구·시·군의회의원 · 행정동 ①

**2위 27.27%**  
1,880표 14,071 기준

정당 무소속  
출생 1962년 08월 25일 (59세)  
직업 여전사진관대표  
학력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 (전)5. 6대 여수시의회의원  
(전)(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 개표완료

개요 **당선인** 개표결과 후보자 투표율 사전투표 거소투표

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재·보

**박승남** 추천순위 1  
강원 횡성군 기초의원비례대표 · 행정동 ①

**국민의힘 60.92%**  
14,071 기준

정당 국민의힘  
출생 1957년 05월 09일 (65세)  
직업 정당인  
학력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 (전)동월성농협 상무  
(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 **신우철 회원 父親喪(신현우)**
  - 소속지회 : 강원지회 원주시지부
  - 일시 : 2022년 5월 23일

---

- ▶ **김종학회원 자녀 결혼식(민수 결혼君)**
  - 소속지회 : 강원지회 춘천시지부
  - 일시 : 2022. 06. 19(일) 12:00
  - 장소 : 춘천 스카이 4층(스카이하일)

---

- ▶ **이정호 회원 장녀 결혼식(경희嬢)**
  - 소속지회 : 경기지회 수원시지부
  - 일시 : 2022년 06월 25일(토) 오후 5시
  - 장소 :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15층 베르사이유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인계동 1132-12)

